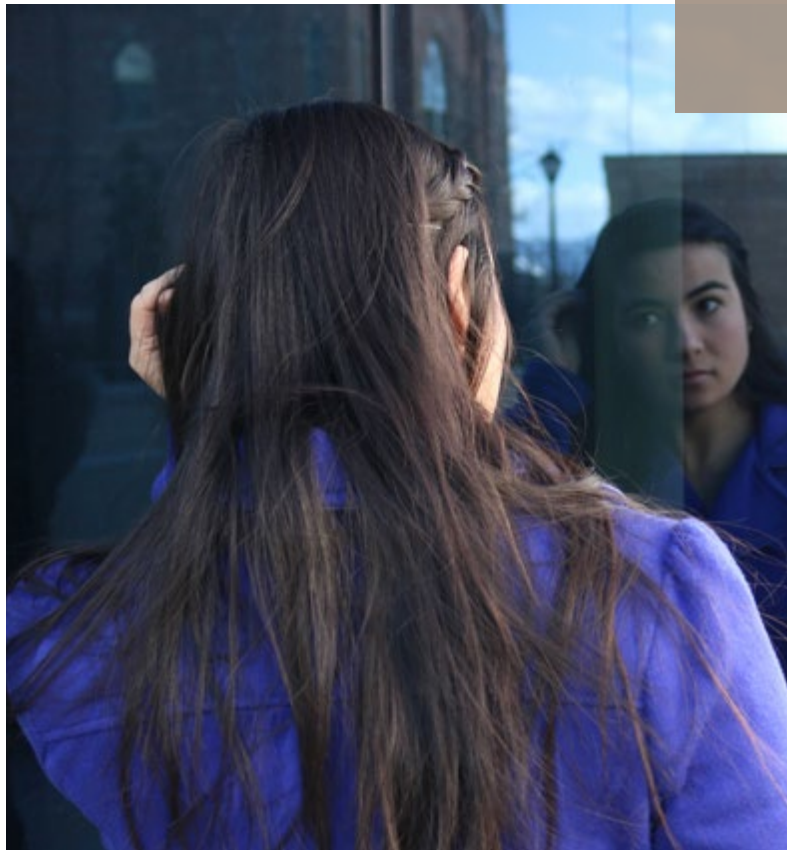


청년 성인

거울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우리의 몸과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진리, 그리고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읽어 본다.

42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다루라
선지자가 보내는 메시지

50

순결의 법
순결의 법은 정확히 무엇인가?

56

우리의 몸
20가지 놀라운 점

58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과
의미하지 않는 것

60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리아호나



우리의 몸,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보며,
34, 42~65쪽

우리의 궁극적인 결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12쪽
신앙을 탐구할 때
따를 수 있는
다섯 가지 원리, 20쪽

여기에
교회가
있다

아르헨티나 살타



다음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이다.

2 — 운영 중인 성전

교회 회원 — 452,000

769 — 집회소

선교부 — 14



1923 교회 회원인 두 독일인 가족이 아르헨티나로 이주하다.

1925 멜빈 제이 벨라드 사도를 아르헨티나로 보내 6명의 회원에게 침례를 주다.

1939 남아메리카의 첫 번째 집회소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건립되다.

2018 아르헨티나 살타 성전 건축이 발표되다.

📍 엘 포르테주엘로 와드 집회소

📍 회원들이 종종 헌혈하며 의복을 기부하는 병원

스페인어로 이 도시는 종종 Salta la Linda, “아름다운 살타”로 불린다. 성전이 건립되면 도시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사진: GETTY IMAGES



의로운 선택의 영원한 중요성
쿠엔틴 엘 쿡 장로

20



작은 선택, 커다란 결과
마시모 데 페오 장로

12



내가 누군가의
변화를 도울 수
있을까?

8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몸. 정말 경이롭다. 그렇지 않은가? 누군가가 “와, 나 좀 봐!” 하고 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 놀라울 수도 있고 그저 바보같은 행동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늘 부모처럼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잘 간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잘못 쓰는 일을 피할 수 있을까?

이번 달 청소년 및 청년 성인 섹션에서 육신에 관한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부분적으로는 이 질문들 때문이다.(42, 50쪽 참조) 이번 호는 몸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우며 말 그대로 성스러운지를 이야기한다. 우리 몸이 얼마나 성스러운지를 배움으로써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

50쪽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육신의 욕구를 조절해야 함과, 육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권고한다. 그는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영이며, 선택을 하는 주체도 영임을 가르친다. 넬슨 회장이 선지자로서 주는 권고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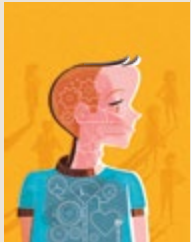
필멸의 육신이라는 경이로운 선물에 관해 가르치고 그것을 이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달에 실린 넬슨 회장의 말씀과 다른 메시지들이 신앙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이 라이언 젠슨
교회 잡지



- 5 인류 및 지구의 타락과 새롭게 됨 ☺
- 6 신앙의 초상: 토미카 반스—미국 앨라배마주 ☺
그녀는 교회 역사에 관한 회원들의 해석 때문에 의문을 품었지만, 물몬경에 관한 간증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냈다.
- 8 성역의 원리: 내가 누군가의 변화를 도울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변화하도록 권유하며 구주께서 보이신 행동에서 일곱 가지 교훈을 배운다.
- 12 신약전서에서 얻은 교훈: 작은 선택, 커다란 결과
마시모 데 페오 장로
회사 모임에서 내린 한 가지 결정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 16 앞으로 세미나리가 어떻게 여러분 가족의 '와서 나를 따르라' 학습을 향상할 수 있는가
제프리 콜먼과 브리트니 앤 리스
- 20 의로운 선택의 영원한 중요성
쿠엔틴 엘 쿡 장로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강화될 수 있다.
- 28 자립에서 오는 축복: 최고의 투자 ☺
마이클 알 모리스
직장에서 해고된 블랑카가 자립 그룹의 도움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 30 후기 성도의 소리 ☺
감독의 사랑에 감동한 저활동 회원, 비극 속에서 평화를 찾은 부부, 적절한 때에 선물로 주어진 라자나 요리, 물몬경의 도움으로 중독을 극복한 한 남성.
- 34 십 대와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우리의 성스러운 몸 ☺
머리사 위디슨
우리 몸은 선물이라는 것과, 이를 돌볼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36 충분한 영광
『성도들』 제2권의 발췌본.
성도들이 나부를 떠날 준비를 하는 내용이 나온다.
- 40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


☺ 짧은 기사



표지 삽화: 스코티 라이프스나이터

섹션


청년 성인
42
자신의 몸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 자신의 몸에 감사를 표하는 법과 자아상을 개선하는 법을 배운 청년 성인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읽는다.



청소년
50
육신의 축복에 관한 넬슨 회장의 말씀을 듣고, 순결의 법과 지혜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며, 우리의 몸이 어떻게 성전이 되는지 알아본다.



어린이
신앙을 연습하는 방법을 배운다. 성신에 관해 더 배운다. 그리고 앤더슨 장로가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8월호 온라인 전용 기사



자신감과 자존감 키우는 법

복기자립서비스

신앙을 쌓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 치른 희생

니키 거스리

스코틀랜드에서 온 한 청년 성인이 옛 친구들을 잃었지만, 교회에서 좋은 새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추가 정보

복음 자료실 앱과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에서 여러분은

- 리아호나 최신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용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과월호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이야기와 피드백을 보낼 수 있습니다.
- 구독 신청을 하거나 구독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도구로 학습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마음에 와닿는 기사와 동영상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기사를 내려받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 마음에 와닿는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질문과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신앙을 증진시키는 여러분의 기사를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많은 아성의 사진: 조애니 박스/UNSPASH; 청년 성인 사진: 티모시 이든/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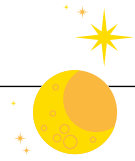
2019년 8월호, 제56권, 제8호
리아호나 18608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십이사도 정원회: 려 셀 벨라드, 제프리 알 율런드, 디아네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앤 덴드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스티븐슨, 데일 지 렌랜드, 게렛 더블유 공, 올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랜디 디 펄크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랜들 케이 베네트, 베기 크레이븐,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쉘런 윌버그, 도널드 엘 홀스트롬, 래리 에이 캐처,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린 지 로빈슨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휘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번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올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보조: 카밀라 카스트리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러머, 게렛 에이치 가프,

존 라이언 젠슨, 에런 존스틴, 살렛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조슈아 제이 퍼키, 켈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민디 셸루, 로리 플러 소사, 차켈 위들레이, 머리사 위디슨
편집 인턴: 알렉산드라 파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루스, 페이 피 앤드라스, 멘디 밴틀리, 시 킴벌 보트, 토머스 차일드, 조슈아 데니스, 데이비드 그린, 콜린 핑클러, 에릭 피 존슨, 수전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예말리 치에코 레잉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케이 니를 워너호스트
디자인 인턴: 소피아 스파나우스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스
제작팀: 아이라 글렌 에데어, 줄리 버렛,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넬슨, 머리사 엠 스피스
사건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우 책임자: 넬슨 콘살레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41호, 제56권, 제8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9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박경렬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세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 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셜어, 말라카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서모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9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사지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uly 2019 Vol. 43 No. 7.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인류 및 지구의 타락과 새롭게 됨

우

리는 모두 출생, 삶, 죽음, 부활을 경험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구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한다. 지구는 (창조를 통해) 태어났고, (홍수를 통해) 물로 침례를 받았으며, (“주께서 오실 때 ...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저 큰 날에”[몰몬서 9:2]) 불의 침례를 받을 것이며, 부활하듯 새롭게 될 것이다.¹

3. 성결한 상태인

지구와 인류: “주님의 재림 시에 ... 지구는 낙원의 상태로 돌아가서 새롭게 될 것이다.”² “그런즉 땅은 성결하게 되리니, 그러하도다.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요” 의인들은 해의 왕국(성결하게 된 지구)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88:17~26 참조)



1. 낙원의 상태에 있는 지구 및 아담과 이브:

“태초에 물질적으로 창조된 모든 것은 모두 본질적으로 낙원의 상태에 있었다.”² 창조 직후에는 필멸의 존재나 죽음을 겪는 존재가 없었다.³



2. 타락한 상태인 지구와 인류:

“지구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같이 지구도 새로워져야 한다.”⁴



주

1.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1916), 313쪽 참조.
2. 브루스 알 맥콩키, 『그리스도와 창조』, 『성도의 빛』, 1983년 9월호, 21쪽.
3. 로버트 엘 밀렛, 『인간 아담』, 『리아호나』, 1998년 2월호, 17쪽 참조.
4.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313쪽, 또한 창세기 3:17 참조.
5. 러셀 엠 벨슨, 『창조』,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02쪽.



토미카 반스

미국 앨라배마주



토미카가 신앙이 흔들린 것은 신권이 제한되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제한에 관한 일부 회원들의 억측 때문이었다. 토미카는 쇠막대를 굳게 잡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물론경 덕분에 그녀는 쇠막대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었다.

레슬리 닐슨, 사진작가

어떤 사람들은 “천국 전쟁에서 용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라든지, “똑똑하거나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들의 말은 엄마에게, 또 신앙의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다른 흑인 교회 회원들에게, 또 교회 밖의 충실한 흑인들에게 배웠던 진실과 다른 것이었다.

나는 잠시 신앙의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는 교회나 나의 신앙에서 그냥 떠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물론경은 참된가? 나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물론이지,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나는 그것이 참된다고 믿어.’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러자 성신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물론경이 참된다면, 그 밖의 다른 것도 그렇단다.”

더 알아보기

복음 자료실 또는 I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 있는 이 기사의 온라인 버전에서 추가 사진을 포함하여 토미카의 신앙 여정에 관해 더 알아본다.

1978년 이전의 신권 제한을 lds.org/go/8196에서 찾아보고 칠십인 위원회의 에드워드 듀브 장로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는지에 대해 읽어 본다.



성역의 원리

내가 누군가의 변화를 도울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역할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창조되었다. 지상의 삶을 경험하는 목적은 우리가 지닌 신성한 잠재력을 향해 성장하는 데 있다. 성역을 베푸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변화를 이루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선택의지가 있기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 가도록 돕는 우리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주와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방법에 관해 구주께서 가르치신 일곱 가지 강력한 교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변화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구주는 사람들에게 옛날 방식을 버리고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고 두려움 없이 권유하셨다. 그분은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생업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마가복음 1:17) 권유하셨고, 간음죄로 잡힌 여인에게는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셨다.(요한복음 8:11) 그분은 또한 부유한 젊은 관원에게 세속의 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권고하셨다.(마가복음 10:17~22 참조) 변화하여 구주를 따르도록 권유할 때, 우리는 담대히 말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보여 줄 수 있다.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경험이나 성역을 받은 경험을 보내 주십시오.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2. 변화는 그들의 선택임을 기억한다

구주께서 권유하시는 변화들은 강요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구주께서는 가르치고 권유하셨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셨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갔다.]” (마태복음 19:22) 가버나움에서도 많은 제자가 “떠나갔다.” 그분은 열두 제자에게 그들도 떠날 것인지 물으셨다.(요한복음 6:66~67 참조) 침례 요한의 제자 중 일부는 구주를 따를 것을 선택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요한복음 1:35~37; 10:40~42 참조)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닮으라고 권유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변화를 결정할 수는 없다. 그들이 설혹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껴서도 안 된다.

3. 다른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예수께서는 중보기도를 드리시면서 제자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당신과 아버지를 닮아 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요한복음 17:11, 21~23, 26 참조) 그리고 베드로가 주어진 역할을 맡을 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의 노력에 힘이 더 보태어져야 함을 아시고는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32절 참조)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야고보서 5:16 참조)



4. 구주의 힘에 의지하도록 가르친다

우리는 오로지 구주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향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분은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요한복음 14:6) 그분의 권능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수 있다.(이디서 12:27) 얼마 이세를 변화하게 한 것은 구주의 속죄 권능에 의지한 신앙이었다.(앨마서 36:16~23 참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구주께 의지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삶에도 구주의 정화하시는 권능이 함께할 수 있다.

5. 사람들을 그들이 앞으로 될 존재로 대한다

사랑과 수용은 변화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요한복음

4:27) 예수님은 그녀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두셨다. 그분은 그녀를 가르치셨고, 변화의 기회를 주셨으며, 그녀는 변화했다.(요한복음 4:4~42 참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앞으로 될 존재가 아닌 예전의 존재로 대하면, 그들을 과거에 붙잡아 두게 될 수도 있다. 그 대신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잊을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변화할 거라고 믿을 수 있다. 약점을 보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는 볼 수 없는 긍정적인 특성을 알려 줄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현재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그들이 앞으로 될 존재로서 바라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6. 그들이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가게 한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속하여 인내”해야 한다.(교리와 성약 67:13)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역할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예수님은

행하도록 권유함

사람들이 구주를 닮아 가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그들에게 권유하고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이번 주에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하셨다. 그분은 심지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마태복음 12:1~13, 요한복음 7:28~29 참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참을성 있게 대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인내하도록 격려해 줄 수 있다.

7. 그들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죽음 후, 베드로를 포함하여 여러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갔다.(요한복음 21:3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분의] 양을 먹이라”라고(요한복음 21:15~17 참조) 일깨워 주셨으며, 베드로는 성역의 길로 돌아왔다.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기는 너무나 쉽다. 사람들이 구주를 따르고 그분을 닮고자 힘쓰도록 우리는 부드러운 격려와 영감어린 권유로 그들에게 계속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수용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타인의 성장을 수용하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한 젊은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학교에서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그에게는 몇몇 약점거리가 있어서 급우들이 쉽게 놀려대곤 했습니다. 후에 그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군에 입대했고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군 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고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 무엇보다도 그는 군대에서 교회의 매력과 그 가치를 알아보았고 활동 회원이 되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어린 시절을 보낸 그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하던 또래 중 대부분은 다른 곳으로 떠났지만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꽤 성공해서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오래전에 그를 바라보던 사고방식이 여전히 그곳에서 그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고향에 남아 있던 사람들에게 그는 여전히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

그 남자는 바울처럼 과거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마련하신 상을 잡으려 노력해 왔지만 이내 그런 모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어린 시절 살았던 방식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사실은 그의 주위에는 ... 그의 미래보다는 과거에 관심이 더 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심어 주셔서 그가 움켜쥐었던 것을 사람들이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잘못이 거의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

*사람들이 회개하게 합시다. 성장하게 합시다. 사람이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²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그들이 앞으로 될 존재로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69쪽.
2. 제프리 알 홀런드, 「앞으로 성취할 최고의 것」, 「리아호나」, 2010년 1월호, 21쪽.



작은 선택, 커다란 결과

세상이 “너도 가고 싶지 않니?”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신약전서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던 영원한 원칙들을 가르치신 구주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어떻게 그 같은 원칙들이 저의 삶을 그토록 많은 면에서 변화시켰나 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저는 우리가 구주의 가르침을 적용할 때, 그 결정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크나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마시모 데 페오
장로
칠십인 정원회

나의 '작은' 선택

수년 전, 새로 관리자 직책을 맡게 된 저는 제가 일했던 정부 기관의 고위 관리들이 개최하는 중요한 업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메리카로 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첫날 밤, 그 기관의 '총책임자'가 그날 밤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제안을 고마워하리라 생각한 듯 그는 보란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표하기 위해 오늘 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해서 독특한 칵테일 음료로 소문난 이 도시의 술집을 순례하며 특별한 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 종류의 술을 맛보고 어느 술집이 최고의 칵테일을 만드는지 투표하겠습니다. 경연대회를 해서 우승자도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돈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다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을 대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계획에 박수를 보내고 있을 때, 그는 당연한 듯 이런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안 가실 분은 없겠죠?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믿을 수 없이 멋진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책임자의 말에 어긋나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 초 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든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으름장을 놓으며 저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무거운 침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한 제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저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왜지요?"

그 순간, 저는 아프다거나 지구의 반대편에 걸어야 할 중요한 전화가 있다거나 그 어떤 이유라도 들어서 저를 이 심한 당혹감에서 구해 줄 좋은 핑곗거리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빼고 우리끼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빼고 우리끼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나를 따라오십시오. 가서 신나게 즐기시다! 그는 혼자 있게 놔두고 말입니다."

그들이 저를 혼자 남겨 두고 회의실을 떠나면서 웃어 대던 그 소리가 울리던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란 토마스 에스 몬슨(1927 ~ 2018) 회장님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쉽다고 해서 그릇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어렵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임을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비록 혼자 남겨질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제 방으로 걸어가면서, 마음속에서 '너도 가고 싶지 않니?'라는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그 순간 시몬 베드로가 구주께 드린 말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요한복음 6:68)

마음이 새롭게 평화로워지면서, 마치 천사들이 저를 격려하며 둘러싸는 듯했습니다. 혼자 있었지만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저의 원칙을 지키면서 저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세상에 홀로 남겨질 수는 있지만, 구주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지만 큼

우리가 매일 하는 결정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항상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며 중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몇 년 후에 그 책임자가 로마에 있는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권력과 권위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우리 모두에게 위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회의를 모두 마친 뒤, 그가 다른 태도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저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날을 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놀랍게도 그는 저에게 유럽 전역을 총괄하는 관리자 자리를 제안했는데, 그것은 제게 경력 면에서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급여, 출장, 복지 혜택 면에서 구미가 당길 것이라고 말하며 저를 설득하는 동안, 특별했던 점은 그가 한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격 요건이 좋은 사람을 찾을 뿐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고결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데 페오 씨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주를 선택하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신념을 지키기로 한 저의 작은 결정이 결국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작은 결정은 결국 저에게 현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제가 맡은 새로운 임무 중에는 몇 년 전에 저를 비웃었던 대부분의 관리자들을 감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옳은 선택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선택이든 저런 선택이든, 매일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 숙고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²

사도 바울은 또한 선택하는 것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매일 우리가 하는 선택들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되면, 몬슨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탄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을 화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궁극적인 결정은 늘, 올바른 우선순위에 따라 첫째되는 두 계명을 지키느냐의 여부입니다. 즉, 이웃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전에 다른



사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서 있다면 영을 더욱 풍성히 받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시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두 번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보다 앞에 둘 것인지의 결정입니다.(마태복음 22:37~39 참조)

증인이 된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맺는 가장 일반적인 성약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우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 [는]” 것입니다.(모사이야서 18:9; 강조체 추가) 그 성약은 우리가 삶의 때 순간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신념을 지키겠다는 단 한 번 내리는 영원한 결정입니다. 그에 수반되는 약속된 축복은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모사이야서 18:10)

세상, 우리의 동료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얼마간의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이 압박은 우리가 별의 왕국에서 해의 왕국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받게 되는 압박입니다. 사실, 사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대한 도전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일상적인 갈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된다면 영을 더욱 풍성히 받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시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중대한 도움을 추가로 주시면서 성신의 권능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로서 더 높고 거룩한 곳에 도달하려 노력할 때, 신성한 은혜는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간극을 메워 줄 것입니다.

영원한 결과

당시에는 작게 보일지도 모르는 선택들이 사실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약을 맺음으로써 약속을 받았습시다. 우리가 주님을 택하면, 즉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어느 곳에서나 증인이 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하면, 비록 우리가 때때로 홀로 남게 되더라도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서서 북돋아 줄 것이며, 우리는 더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84:88 참조)

저는 작은 결정이 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신성한 순간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평화와 안식을 찾을 수 있음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과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원칙을 지킬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너도 가고 싶지 않니?”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세상과 함께 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머무르겠습니까? 침묵하고 행함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념을 지키고 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택하고 기꺼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라고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결정의 축복을 이생과 영원에 걸쳐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선택」,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86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선택」, 86쪽.

앞으로 세미나리가 어떻게 여러분 가족의 와서 나를 따르라 학습을 향상할 수 있는가

다음은 세미나리를 통해 여러분이 가족 복음 공부를 훨씬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제프리 콜먼과 브리트니 앤 리스

20 19년 3월에 제일회장단은 세미나리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발표했다. 이제부터는 개인과 가족이 **와서 나를 따르라**를 통해 가정과 교회에서 공부하는 경전을 전 세계 세미나리 수업에서도 동일하게 공부한다는 것이다. 세미나리 교사(와 부모)로서, 우리는 이 변화에 기대가 크다.

한 가지 확실한 축복은 이렇게 함으로써 십 대 청소년의 삶이 단순화되리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많은 청소년이 학교, 운동, 일,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사회생활을 병행하면서 세 가지의 다른 경전을 공부하려고 노력했다. 하나는 세미나리, 하나는 주일학교, 또 다른 하나는 가족 공부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너무 많은 양이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정과 주일학교 학습을 한 경전으로 맞추어 조정할 후, 세미나리 또한 이에 맞춘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은 한 가지 경전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화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가정 강화

본부 청년 회장인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는 청소년이 “가르침에 동참하거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때 그들은 “가정을 강화”하는 일을 도울 것이라고 가르쳤다!

청소년은 진리에 목말라 하며 의견을 나누고 싶어 한다! 여러분을 그저 멍하니 쳐다보는 십 대 청소년이 있었다면 약간은 믿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부모와 교사로서 우리에게는 모두 그런 경험이 있다! 세미나리 교사로서 우리는 십 대 청소년에게 항상 질문한다. 가끔은 단지 그들이 답을 모르기 때문에 대답 대신 멍한 눈으로 쳐다볼 때가 있다. 하지만 세미나리와 **와서 나를 따르라**의 교과 과정이 맞추어지면, 세미나리 해당 연령의 아이들은





더 쉽게 세미나리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의 복음 토론에 적용할 수 있고, 그 반대로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세미나리 수업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

가정에서의 경전 공부를 세미나리에 적용하기

2019년 초에 새로운 **와서 나를 따르라** 과정이 막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학생들의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세미나리에서는 교리와 성약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신약전서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에 대해 매우 기뻐했다. 우리가 세미나리에서 교리와 성약 89편(지혜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을 때, **와서 나를 따르라**에서는 요한복음 2장(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야기)을 공부하고 있었다. 이 두 부분이 갖고 있는 공통된 원리와 생각을 찾았으로써 학생들은 가정에서 배운 것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었다. 그들은 훨씬 잘 참여했고, 학생들에게 말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훨씬 더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집에서 배운 것을 세미나리 학습에 적용할 수 있었다.

세미나리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 적용하기

2020년에 가정, 세미나리, 주일학교에서 몰몬경을 배우게 되면 학생들은 이들 세 곳에서 배운 것들을 훨씬 많이 나눌 수 있게 된다. 가족 경전 공부에서 유익하게 쓰일 만한, 세미나리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학습 전략이 있다. 이 전략들은 여러분의 십 대 자녀가 가정이 중심이 되는 경전 공부에

과거에는 가족들이 교회 공부, 세미나리 공부, 가족 경전 공부를 조율하느라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제 최근의 변화를 통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복음 토론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리저드 미디어

더 잘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 줄 것이다.

가족이 모여 앉을 때,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같은 경전에서 같은 원리를 배우는 중일 것이고, 세미나리에서 그 원리를 이미 공부했다면 내용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실제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견을 나누도록 부탁할 때 '곤혹스럽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세미나리 학습 덕분에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복음에 관해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가정의 밤과 가족 경전 공부 시간은 서로 개인적인 통찰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다음은 가정에서 여러분이 십 대 자녀들에게 의견을 나누도록 권유할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개방형 질문이다.

1. 오늘 세미나리에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니?
2. 오늘 배운 것 중 어떤 것이 너에게 가장 와닿았니?
3. 세미나리에서 배운 어떤 복음 원리가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4. 오늘 배운 경전 이야기 중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5. 세미나리에서 배운 어떤 경전 이야기가 너의 삶에 영향을 주었니?
6. 오늘 세미나리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영감을 받았니?
7. 세미나리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서 구주에 관해 무엇을 배웠니?

여러분의 가정 학습 진도가 세미나리 학습 진도보다 더 앞설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때에는 청소년이 가정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 세미나리 교사들이 위의 질문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교리 익히기

세미나리 경전 공부 방식은 이제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교리 익히기에 집중한다. 교리 익히기는 학생들이 경전에서 배운 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며 그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돕는다. 즉, 학생들은 참된 교리를 배움으로써 개심을 강화하고, 그 교리를 권능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신화에 관해 가르치는 성구 하나가 있다면, 세미나리에서 그 성구를 배울 때 신화에 관해 가르치는 다른 성구들을 찾아본다.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그 성구들에서 신화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주목하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학생들이 이 성구들을 활용하여 신화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역할극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다.

여러분은 이 방법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1. 경전에 나오는 원리들을 가르친다.
2. 그 주제에 관한 다른 상호 참조 성구들을 나눈다.
3. 여러분의 가족이 이들 성구를 찾는 방법을 외우거나 기억하도록 돕는다.
4. 이러한 가르침들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토론한다.

깊이 있는 배움을 위한 준비

세미나리에서는 우리가 깊이 있는 배움이라고 부르는 것을 크게 강조한다. 깊이 있는 배움은 개심으로 이끄는 학습이다. 깊이 있는 배움의 한 가지 비결은 배우기 위해 더욱 잘 준비하는 것이다. 학생이 준비를 더 잘하게 하는 방법은 세미나리 반마다 다르다. 하지만 몇몇 세미나리 반에서 시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준비 과제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수업에서 공부할 부분의 경전을 입도록, 학생들에게 몇 가지 학습 질문과 성구 블록을 과제로 주어 집으로 보낸다. 세미나리와 **와서 나를 따르라** 교과 과정의 진도가 통일되면, 학생들은 세미나리 준비 과제를 가족과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족이 함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늘어날 것이다.

여러분은 십 대 자녀가 다음과 같이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1. 가족과 준비 과제에 대한 내용을 나눈다.
2. 세미나리 수업 후에는, 그 주제에 관해 그 외에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한다.



구체적인 목표 정하기

여러분은 **와서 나를 따르라** 교과 과정 수업에서 종종 우리에게 목표를 정하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세미나리에서도 이렇게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더 건강해지기'와 같은 일반적인

동안 그가 인내심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에 관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는 차 안에서 차분한 음악을 듣고 자신이 차에 탈 때마다 인내심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게 상기시켜 주는 메모를 계기판에 붙이겠다는 계획을 생각해 냈다.

여러분은 십 대 자녀가 다음과 같이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1. 자신의 목표에 관해 이야기한다.
2. 여러분이 가족으로서 어떻게 비슷한 목표를 정하고 달성할 수 있을지 이야기한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

가족 경전 공부에 활기를 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제 통일된 교과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세미나리 해당 연령의 자녀에게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을 나누도록 권유할 수 있다. 자녀가 세미나리 학습과 가족과 함께 하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학습에서 같은 경전을 공부할 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복음에 관한 이해를 통해 가족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지부, 와드, 스테이크 건물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가정을] 뒷받침하는[,] **가정이 중심이 되는 교회**”²가 되기 위한 교회의 노력 속에서, 이 단계는 청소년이 자신의 가정을 강화하는 일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리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의 다음 말씀에 공감한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힘이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는 이 변화가 큰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의 다른 부문에서 일어나는 일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이러한 조정이 훌륭한 조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개념과도 잘 통합되리라 믿으며 이제 가정이 중심이 되고 ‘세미나리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복음 학습 방식이 추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³ ■

글쓴이들은 미국 유타주에 거주하는 세미나리 교사들이다.

주

1. 보니 에이치 코든, “세미나리 교과 과정이 가정 중심 학습을 뒷받침하다”(동영상, 2019년 3월 22일, ChurchofJesusChrist.org)
2. 리셀 앤 벨슨, 「개회 말씀」,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7쪽.
3. 제프리 알 홀런드, “세미나리 교과 과정이 가정 중심 학습을 뒷받침하다.”

목표뿐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은 목표를 정할 때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그 목표를 달성할지 계획한다.

예를 들어 한 청소년이 인내심을 기르겠다는 목표를 정한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인내심을 기를 것인지 계획하는 것이다. 그들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인내심을 갖기 힘들다고 느끼는가? 한 학생은 운전할 때 인내심을 더 가져야겠다고 결심했다. 운전하는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의로운 선택의 영원한 중요성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선택으로 우리의 미래와 행복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단합보다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단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원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를 한 마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이렇게 믿기도 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속한 부족의 정체성을 통해서만 결정된다. 사회는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고 정서적으로 얼어붙게 만드는 전쟁터이다.”²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공통적인 하나의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입니다. 단합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본 원리는 의로움입니다. 저는 니파이후서 9장을 좋아하는데, 그 장에는 배움, 지혜, 부, 노동에 관한, 그리고 죄의 결과를 보거나 듣기를 거부하는 것에 관한 놀라운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주께로 가는 의로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심오한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과 의로움과 지식을 성공적으로 추구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생각되는 다섯 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들은 양립할 수 있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은 실질적인 수준에서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가족을 부양할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의로움, 지식은 그 두 영역 모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직한 노동은 가치가 있으며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가치와 의미, 새로운 생각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축복하는 노동은 특히 중요합니다.



옛것이든 새것이든 의롭게 사용되는 지식은 모두 중요합니다.

1.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제가 전할 첫 번째 원리는 열정적으로 의롭게 지식 탐구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영웅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활동적인 교회 회원인 폴 콕스를 들겠습니다. 그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식물학으로 이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다른 대학원에서 또 다른 학위들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모아에서 선교 사업을 했으며, 후에 가족과 함께 사모아 사바이섬에서 수년간 살았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 중 하나는 민속 의학이었는데, 그는 건강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사모아의 어머니들이 수 세대에 걸쳐 사용했던 식물 중 일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또 한 명의 공동 집필자와 함께 『Plants, People, and Culture: The Science of Ethnobotany』 [식물, 사람, 문화: 민속 식물학]이라는 책도 썼습니다.³

그는 질병 치료에서도 몇 가지 획기적인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경력을 쌓으며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다만 오래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폴은 사모아 족장 푸이오노 세니오와 함께 서 사모아 팔레알루포 마을에서 민속 식물학을 연구했습니다.

『BYU 매거진』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 마을은 학교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못해 벌목 회사에 마을 숲의 벌목을 허가했다. ‘아이들과 숲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콕스는 말했다. 콕스는 벌목 회사와 맺은 거래에 대해 알게 된 후 족장들에게 열대 우림의 벌채를 중단할 수 있다면 학교 건립 비용은 자신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⁴

그는 사모아와 관련이 있는 사업가들의 도움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⁵ 콕스 형제는 풀뿌리 환경 운동가에게 주는 골드만 환경상을 비롯해 많은 훈장과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류를 축복하는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배움에 관한 사랑과 지식의

상승 작용을 잘 보여 줍니다.

제 영웅 중 또 한 사람인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심장 절개 수술 개발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으며, 그분의 업적은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크게 축복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그분에게 심장 절개 수술의 놀라운 역사와 그 분야에서 그분이 맡았던 중요한 역할에 관해 여쭙보았습니다. 잠시 그 이야기를 나눈 다음, 그분은 이렇게 겸손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발견하는 큰 기쁨을 얻게 해 주시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니파이후서 9장 29절에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권고에 귀 기울일진대, 학식을 얻음은 좋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항상 중요했으며, 우리는 오늘날 여러 가지 새롭고도 흥미진진한 과학 기술 진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발전 대부분은 교회와 온 인류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옛것이든 새것이든 의롭게 사용되는 지식은 모두 중요합니다.

2. 의로운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칠십인 정원회 명예 회원이 되신 브루스 시 하펜 장로님은 오래전에 뉴질랜드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그릇된 선택에 관한 재미난 예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것은 쿠키 몬스터 (유명한 세서미 스트리트에 등장하는 인물)가 퀴즈 쇼에서 우승해서 상으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상은 한 달 후 새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 후 새 차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당장 근사한 쿠키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쿠키 몬스터가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쿠키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웃어넘기지만,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 우리의 미래와 행복이 결정됩니다. 현재의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총합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의 모든 선택을 토론하고 분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로운 제안이나 원리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대합니다.(디모테후서 4:3 참조) 선지자 리하이는 생을 마칠 무렵,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이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라.

그러한즉 육체로 말할진대 사람은 자유로우며,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니파이후서 2:11, 27)

구원의 계획을 두고 벌인 천국 전쟁을(아브라함서 3장 참조)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가르치는 종교적인 원리들이 악의에 찬 사나운 공격을 받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기 위해, 천국 전쟁의 결과와,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멋진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훌륭한 선택을 내리는 데에서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은 합리화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압니다.(교리와 성약 72:3 참조) 우리는 또한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바로 구주이십니다!(니파이후서 9:41 참조; 또한 사도행전 4:12 참조)

때로 중요한 선택은 매우 단순합니다. 젊었을 때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저는 동반자와 함께 성전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전 경내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셀보이 제이 보이어 성전 회장님이 저희에게로 걸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선교사 명찰을 본 그분은 우리를 가리키며 “마태복음 5장 48절을 압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 동반자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답하자 보이어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웁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님들은 그 계명대로 살고 있습니까?”

저희는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분이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한 일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언제 잠자리에 들었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개인 경전 공부를 했는지, 동반자와 함께 경전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제시간에 전도하러 나갔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이 온전하지

우리가 내리는 선택으로 우리의 미래와 행복이 결정됩니다.



않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장로님들은 지난 3일 동안 온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말은 장로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질문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했습니다.

리하이는 선택에 대해 이렇게 외쳤으며, 모든 의로운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이런 말을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나는 너희가 크신 중보자를 바라보고 그의 큰 계명들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충실하여, 그의 성령의 뜻을 좇아 영생을 택하 [기를 바라노라.]”(니파이후서 2:28)

우리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며 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유명한 개신교 목사인 해리 에머슨 포스딕의 글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선택을 주제로 논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비극적인 악은 보통 뜻하지 않게 일어난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초라하고 시시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았다. 그런 목표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았다. …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매일 의롭게 바치는
헌신적인 노력이
어찌다가 하는 영웅적인
행동보다 더 낫습니다.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나는 높은 이상, 숭고한 목표, 훌륭한 목적, 웅대한 결의를 찬양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런 것들에 이르게 해 주는 매일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 내 영혼이여,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보라! 막대기의 한쪽 끝을 집어 드는 사람은 그 막대기의 맞은편도 집어 들게 된다. 어느 길로 갈지를 선택하는 자는 그 길이 인도하는 곳도 선택한다.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과정이다.”⁷

3. 매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매일 의롭게 바치는 헌신적인 노력이 어찌다가 하는 영웅적인 행동보다 더 낫습니다. 제 친구 짐 자르딘은 브리검 영 대학교의 한 강연에서 학생 시절에 자신은 “나의 삶을 단 한 번의 위대하고 영웅적인 행위로 헌납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후에는 “헌납이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바쳐야 할

헌신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⁸

저도 어렸을 때 뭔가 영웅적 행위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 외증조부인 데이비드 패튼 김볼은 스위트위터강을 건너는 마틴 손수레 부대원들을 구출하고 도왔던 청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제가 찾고 있던 헌납의 행위 같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외할아버지인 크로지어 김볼을 방문했을 때, 외할아버지는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이 구조 대원들을 보내며 당부한 것은 손수레 부대를 구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헌납은 특별히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사람은 자신의 의무나 원칙에 꾸준히 충실하며 의롭게 헌신해야 크게 존경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 패튼 김볼이 개척자들을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준 일이 영웅적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소셜 미디어의 사용을 줄이고, 물문경을 공부하고, 특히 휘장 양편에 있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을 도움으로써 선지자를 따르는 것도 똑같이 영웅적인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을 돕는다면, 제 외증조부가 손수레 부대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인류의 영혼을 구조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교회 회원은 뭔가 막중한 부름을 받으면 열정적으로 헌신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지속해서 노력하며 성역을 행하거나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일도 충분히 영웅적인 일임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4. 의로움의 문제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십시오

수년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이 교회에서 저활동 회원이었던 자신의 몇몇 친구에 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그들의 신앙이 커졌다가 작아지는 양상을 지켜보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도 관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문경에 있는 한 구절이 그 점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모사이야서 5장 13절에 있는 질문입니다. ‘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에게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

이 질문은 흔히 일어나는 일, 즉 다른 모든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쉽게 세상의 관심사에 끌리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주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대신 외인이 된다면,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이 됩니다. 이런 일이 그런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중대한 범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대체로 구주와 거리를 두게 되면서 그들에게 그분이 낯설어지기 때문입니다.”⁹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속적으로 성역을 행하는 단순한 행위는 영웅적인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한 훌륭한 선교부 회장님이 선교사였던 저희에게 신앙과 의에 관한 짙막한 글을 암기하게 하셨는데, 그 문장은 평생 저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결연한 영혼의 굳은 결심을
피하거나 막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우연, 운명, 숙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¹⁰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의롭게 살기 위해 우리는 결연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5. 의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의 유산을 받으십시오

물문경에 나오는 훌륭한 기사 중 하나는 엘마가 자기의 세 아들 힐라맨과 시블론, 코리엔톤에게 준 권고입니다. 엘마는 선지자 엘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기적적인 개종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간에 성도들이
피해야 할 한 가지 잘못된 빌려온 빛으로
살아가려 하고 …… 자기 안의 빛을 본래
빛으로 밝히려 하기보다는 반사하여
비추려는 성향입니다.”

나라의 대판사였고 교회의 대제사며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중 두 명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아들은 아주 그릇된 선택을 했습니다. 엘마의 권고가 제게 던지는 가장 큰 의미는 그가 자기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그 권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그들이 가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관한 간증이었습니다.

엘마는 36장에서 힐라맨에게 자신의 기적적인 개종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엘마에게 그가 계속해서 교회에 반대한다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마는 자신이 아는 지식이 자신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간증합니다. 그는 힐라맨이 간증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대부분은 아니라 해도 많은 분이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적인 간증이 필요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9)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간에 성도들이 피해야 할 한 가지 잘못된 빌려온 빛으로 살아가려 하고 …… 자기 안의 빛을 본래 빛으로 밝히려 하기보다는 반사하여 비추려는 성향입니다.”¹¹

영 회장의 보좌였던 히버 시 김볼(1801~1868)

회장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그 어떤 남자나 여자도 빌린 빛으로는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으로 인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빛이 없다면, 어떻게 견뎌 내겠습니까? …

… 빛이 없이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찾고 그 간증을 고수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시련의 시기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¹²

교리와 성약 76편은 영광의 세 등급에 관해 언급하며, 해의 영광을 해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달의 왕국을 달과 비교하고 별의 왕국을 별들과 비교합니다.(또한 고린도전서 15:41 참조)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 빛을 반사하거나 “빛을 빌려온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79절은 달의 왕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들은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빌려온 빛으로는 해의 왕국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간증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쳐 주신 훌륭한 부모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자신만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부친이 물려준 유산은 빌려온 것이니,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새로이 구하라.”¹³

모든 사람이 의로운 선택을 할 책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조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 개인적인 신앙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욱더 돌이키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고통하는 때를 대비하라

교회는 우리가 의로운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처한 “고통하는 때”를 위해(디모데후서 3:1)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이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만든 짧은 실행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 동안 안식일과 성스러운 성찬 의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 강화된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교회의 목적과 신성하게 제정된 교회의 책임에 역점을 두고, 회원들이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더 높고 거룩한 방식으로 행하는 성역이 기쁘게 시행되고 있다.
- 목표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의 일환으로, 성전 성약과 가족 역사 사업이 성약의 길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2018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이루기 위한 추가 변경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안식일을 만들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교회는 우리가 의로운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해 왔습니다.



정원회가 승인하고 제가 전한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조정 사항 및 기타 최근의 변화와 관련된 목적과 축복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돌이키고 신앙을 강화한다.
-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과 과정을 통해 개인 및 가족을 강화하여 복음 생활에 기쁨을 더한다.
- 성찬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안식일을 지킨다.
- 성전에서 의식, 성약, 축복을 받고 선교 사업을 통해 회장 양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돕는다.¹⁴

주어진 권고에 따라 의롭게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현재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

2018년 11월 20일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 및 2019년 2월 1일 유타 밸리 대학에서 전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함.

주

1. David Brooks, "The Rise of the Amphibians," New York Times, Feb. 15, 2018, nytimes.com.
2. Brooks, "The Rise of the Amphibians."
3. Michael J. Balick and Paul Alan Cox, Plants, People, and Culture: The Science of Ethnobotany (1996).
4. Julie Walker, "Professor and Samoan Chief Awarded for Saving Rain Forest," BYU Magazine, Summer 1997, 8; 또한 앤 빌링스, 「여러분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폴 콕스—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존함, 『성도의 빛』, 1998년 11월호, 32~37쪽 참조.
5. 여기에는 교회 회원인 렉스 모건, 켈 머독 등이 포함되었다.
6. See Bruce C. Hafen and Marie K. Hafen, "Bridle All Your Passions," Ensign, Feb. 1994, 16.
7. Harry Emerson Fosdick, Living Under Tension (1941), 111.
8. James S. Jardine, "Consecration and Learning," in Henry B. Eyring, ed., On Becoming a Disciple-Scholar: Lectures Presented at the Brigham Young University Honors Program Discipline and Discipleship Lecture Series (1995), 78.
9. Neal A. Maxwell, "Insights from My Life," Ensign, Aug. 2000, 9.
10. Ella Wheeler Wilcox, "Will," in Charles Wells Moulton, The Magazine of Poetry: A Quarterly Review, vol. 5 (1893). 선교부 회장은 메리온 디헵크스 장로였다.
11. Joseph F. Smith, Gospel Doctrine, 5th ed. (1939), 87.
12. Heber C. Kimball, Orson F.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975), 450.
13. Johann Wolfgang von Goethe, Faust, trans. Bayard Taylor (1912), 1:28.
14. 쿠엔틴 엘 룩,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지속적인 개심,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8~11쪽 참조.

최고의 투자

마이클 알 모리스
교회 잡지

블랑카 그레고리는 해고를 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녀는 ‘더 좋은 일자리 찾기’ 자립 그룹에 가입했다.

블랑카 그레고리는 은행에서 12년 동안 부지점장으로 근무한 것을 포함해 27년간 은행에 재직했다. 그런 까닭에 실직은 그녀에게 가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놀라운 마음도 잠시뿐이었고, 금방 걱정과 스트레스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나마 다행인 일은 블랑카의 남편인 에릭이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모아 놓은 돈도 있어서 살림을 꾸려나갈 수는 있었다는 것이다. 아팠던 몸이 회복되고 일을 놓은 지 1년이 지나자 블랑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력서를 다시 손보고, 컴퓨터 수업에 등록하고, 취업 박람회에 가고, 취업 지원서 작성도 시작했다. 그 결과 그녀는 몇 차례 취업 면접을 보게 되었다. 블랑카는 자기 정도의 경력이라면 쉽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블랑카는 이렇게 말했다. “어디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아 걱정이 되었죠. ‘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느 곳에서도 일자리 제안을 받지 못한 채로 몇 달이 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에서 한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던 그녀의 남편은 블랑카에게 마지막으로 교회 자립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고 '더 좋은 일자리 찾기' 그룹에 가입해 보라고 제안했다.

“영을 느껴요”

블랑카는 '더 좋은 일자리 찾기'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12주 과정을 시작했다. 이 과정은 그녀가 네트워킹, 기회 파악, 이력서 갱신, 전문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법, 취업 면접 준비 등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또한 구직에 필요한 자원을 찾고, 연락을 취하고, 직접 만나는 것에 관한 일일 목표를 세웠다.

“자립 수업은 다른 수업과 달라요. 이젠 영감이죠. 우린 그곳에서 영을 느껴요.” 블랑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그곳에서 신앙을 행사하고,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께 간구하라고 배웠어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기술과 능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에 의지하라고 말이에요.”

'더 좋은 일자리 찾기' 그룹 덕분에 블랑카는 “30초 자기소개”라는 네트워킹 구축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자질을 설명하고 사람들 및 사업체와 연락하는 연습을 다방면으로 할 수 있었다. 30초 자기소개 문구는 구직자가 찾고 있는 일의 종류, 구직자의 경험, 구직자가 사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용주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립 과정에 들어간 지 약 8주쯤 되었을 때, 블랑카는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온종일 계속해서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음이 겸손해졌죠.” 블랑카는 이렇게 말했다. “직업을 찾는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정말 필요했어요. 관리자가 되고 싶거나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직업이 필요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주님께 토로했죠.”

그녀는 5개의 일자리에 온라인으로 지원했는데, 그것은 그날 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였다. 바로 다음 날, 잠재적인 고용주가 그녀에게 은행 지점 임원직을 놓고 면접을 보자고 연락해 왔다. 그녀는 기도가 그렇게 빨리 응답되었다는 것에 가슴이 설렸다.

블랑카는 이렇게 말한다. “면접 자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수업에서 정말 오랫동안 연습했거든요.” 그럼에도 그녀는 면접을 보기 전에 열렬히 기도하며 이렇게 간구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해야 할 말을 주셔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를 면접하는 사람들이 제가 해낼 일들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게 인생을 바꿀 거예요”

2018년 3월, 블랑카의 면접이 있고 며칠이 지난 후에 미키와 마거릿 포스터 부부는 그날 저녁에 있을 '더 좋은 일자리 찾기' 모임을 위해 뉴포트 비치 스테이크 예배당 주차장에 차를 댔다. 당시 자립 지원 서비스에서 전임 장년 선교사로 봉사 중이던 포스터 부부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는데도 벌써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블랑카의 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포스터 장로는 “블랑카가 어찌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그녀는 우리 차로 뛰어와서 방금 취직이 되었다고 말했죠.” 라고 말했다. “블랑카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립 프로그램과 자립 그룹이 일자리를 찾던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해주었어요.”

블랑카는 포스터 부부에게 자신이 지금만큼 구주를 가깝게 느낀 적은 없었으며, 지금보다 더 그분이 자신의 삶에 깊이 개입하신다고 느낀 적도 없었다고 간증했다. 세 사람은 모두 감사와 복받치는 감정에 눈물을 지었다. 1년이 지나서도 블랑카는 여전히 자립 그룹과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은행 임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

“보수가 좋아요. 근무 시간도 좋고요. 복지도 좋죠.” 블랑카는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고 새로운 재능을 개발하며 “회사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한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더 좋은 일자리 찾기' 12주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 프로그램은 이력서를 갱신하고 자신이 가진 기술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을 행사하고 간증을 키우는 법을 배우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것이 변화를 만드는 거죠. 수업은 매주 두 시간밖에 안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수업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

존을 위한 부름

오래전에 감독으로 갓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꾸준히 교회에 참석하는 한 충실한 자매님을 눈여겨보았는데, 그녀의 남편인 존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존이 집회소가 지어질 당시 그 지부의 지부 회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부 회원들이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던 탓에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다 하느라 그는 탈진했고, 결국 저활동 회원이 되었다.

와드 회원들이 집으로 찾아가면, 그는 마치 “날 교회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듯 버젓이 담배에 불을 붙이고 의자 옆에 맥주 캔을 놓아두곤 했다.

나중에 나는 존이 가전제품 수리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와드의

나이 든 회원들은 종종 물건을 고쳐 달라며 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존이 그런 기술이 있음을 알게 된 후로 나는 존에게 전화해서 수리에 관한 조언을 구하곤 했다.

나는 거의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다. 그 당시 우리는 와드 서기가 필요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 후, 나는 존에게 그 부름을 주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스테인크 회장은 나의 제안에 이렇게 답하셨다. “지금은 그 형제님에게 부름을 줄 수 없습니다! 그는 담배도 피우고 맥주도 마시지 않습니까?” 나는 스테이크 회장님에게 어쨌든 그를 접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존은 접견하러 왔지만, 단호히

대답했다. “안 됩니다.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과 다른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존은 여전히 저활동이었고, 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로 돌아오는 문제에 관하여 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스테이크 회장님께 존과 접견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존은 또 거절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준비가 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후로도 나는 계속해서 존에게 조언을 구했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친분을 쌓아 갔다.

어느 날, 전화를 받았더니 이런 소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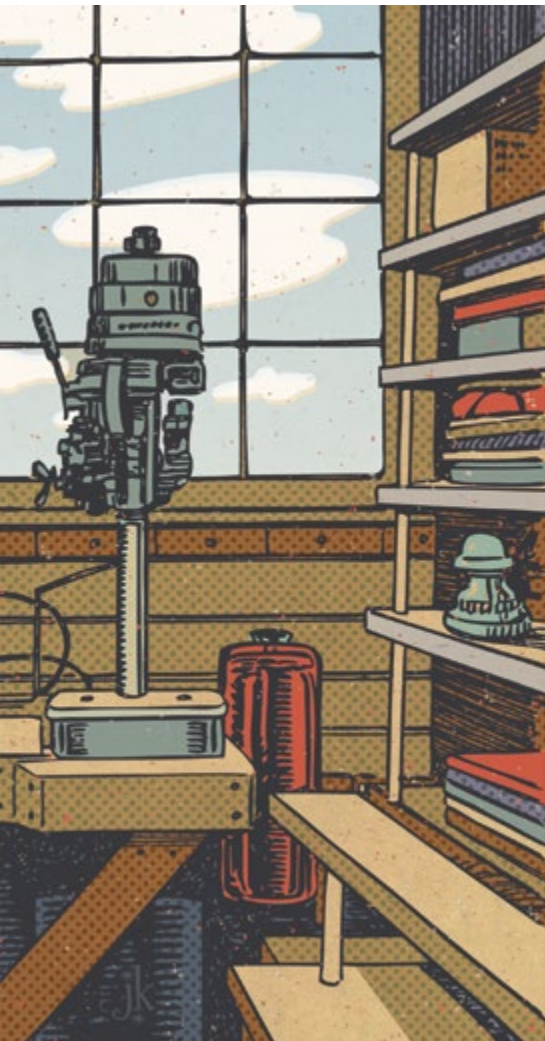


삽화: 존 커리

들렸다. “감독님이시죠?” 그가 처음으로 그런 호칭으로 나를 불렀다. “존이에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 후에 그는 부름을 받고 워드 서기로 봉사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존은 여러 부름에서 봉사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지금은 성전에서 봉사한다. 내 결혼 50주년 기념 파티 때 존이 준 쪽지에는 “감독님, 제 인생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존이 교회로 돌아온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인내하며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
버크 윌드론, 미국 유타주



상실의 축복

마침내,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우리는 첫 아이를 갖게 되었다.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인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태아는 무럭무럭 잘 자랐다. 우리가 얻은 이 여자아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 온 축복이었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만큼 행복해했다.

그러나 합병증이 찾아왔다. 혈액과 간에 생긴 희귀한 합병증으로 아기와 나까지 다 위협해졌다. 또, 의사들은 태반에서 혈액이 엉기고 있다는 진단도 내렸다. 임신 6개월째에 나는 아기를 분만해야 했다.

그렇게 태어난 우리 딸은 무게가 0.5kg도 안 되었고 키도 겨우 25cm를 넘는 수준이었다. 병원 간호사들은 우리 아기를 “꼬마 용사”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기는 태어난 지 나흘 만에 상태가 악화되어 숨을 거두었다. 딸을 낳고도 품 안에 아무것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 남아 있는 양증맞은 아기용품들을 보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우리 고향인 가후쇼스까지 거의 300km를 무릎에 작은 관을 올려놓은 채로 갔다. 우리는 그곳에 아기를 묻었다. 때때로 나는 아기가 옆에 있는 듯한 기분을

나는 존이 가전제품 수리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수리 문제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 주면,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하곤 했다.

느꼈다. 마치 아기가 내 얼굴을 손으로 만지는 듯했다. 남편인 구스타보가 무덤을 헌납했고, 우리는 아기를 묻었다.

우리는 친정에서 3일을 보냈으며, 사람들이 그곳으로 우리를 보러 와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주님께 의문을 품지 않았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특별한 사람, 이 꼬마 천사의 부모가 되게 해 주셨다. 우리 딸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다하는 데는 고작 며칠만 필요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일이 형벌이나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딸과 다시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복음은 우리에게 빛과 힘을 주며 언젠가 우리가 그녀를 키울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준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슬픔을 느낀다. 가끔은 마음이 공허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는 영의 위로가 찾아온다.

우리는 다시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따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언젠가 가족으로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

파트리샤 모라에스,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나는 그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서 라자냐를 좀 많이 만들었으니 그걸 갖다주고 싶다고 말했다.

생일 선물이 된 라자냐 요리

나는 빵을 굽거나 여분의 음식을 만들어 와드 회원에게 갖다주며 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소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는 집에 남편과 나 단 둘뿐이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요리하면 다 먹는 데 보통 며칠씩 걸리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씩만 만든다.

어느 날 밤, 나는 라자냐를 조금 만들기로 했다. 라자냐: 얇게 민 밀가루 반죽을 직사각형으로 잘라서 만든 넓적한 판 모양의 이탈리아식 국수—웁진에 나는 큰 팬 하나를 채워 만드는 대신, 좀 작은 팬 두 개에 라자냐를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하나는 우리가 저녁으로 먹고, 다른 하나는 음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나는 상호부조회 회장님에게 전화해서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회장님은 일을 하며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어머니에 대해 귀띔해 주었다. 그날 오후, 나는 그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서 라자냐를 좀 많이 만들었으니 그걸 갖다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 자매는 이렇게 답장을 보내 왔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물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 자매는 아직 직장에 있었지만, 아이들은 집에 있을 테니 나는 언제든지 음식을 가져다줄 수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문자를 보내 이렇게 물었다.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나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녀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음, 저 자신에게 생일 축하를 해 줘야겠네요!”

내가 음식을 가지고 갔을 때, 그녀도 막 퇴근해 있었다. 그 자매도 아이들도 모두 기뻐했다.

일요일에 교회에서 만났을 때, 그 자매는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해서는 생일 때마다 할머니가 저녁을 만들어 주셨는데 할머니가 늘 해 주신 음식이 바로 라자냐였다고 이야기했다. 그녀의 할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날은 라자냐를 만들어 줄 할머니가 없는 그녀의 첫 번째 생일이었던 것이다.

내가 생일날 라자냐를 갖다주었을 때, 그녀는 주님께서 자기를 알고 사랑하신다는 더 큰 간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 역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봉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간증이 더욱 강해졌다. ■
익명, 미국 텍사스주

목요일까지 150쪽을 읽으라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절이었다.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 그때 나는 서른 살이었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직장도 잘리기 직전이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신문사의 선임 편집자가 “한 번만 더 술에 취해서 출근하면 당장 해고”라고 경고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두 명의 선교사가 멈춰서더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대꾸했다. 그러면서도 기자여서 그런지, 그들에게 내 명함을 주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미국인 두 사람이 나를 만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명함을 가지고 있더구나.”

며칠 전에 만났던 그 선교사들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나에게 소책자를 건네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어서 그의 동반자는 나에게 물문경을

건넸다. 그러면서 그는 나에게 그 책에서 몇 개의 장을 읽어 보겠느냐고 물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그는 나를 자세히 쳐다보더니 150쪽까지 읽어 보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불가능해요!” 내가 말했다.

그는 “목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목요일이면 겨우 며칠 뒤가 아닌가. 도저히 그만큼은 못 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나는 퇴근 후에 친구들과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때 선임 편집자의 경고와 읽어야 할 150쪽이 생각났다. 나는 집으로 가서 물문경을 읽기 시작했다. 조셉 스미스에 관한 소책자도 읽었다.

조셉 스미스에 관해 읽었을 때 영이 내 마음을 어루만졌다. 구주에 관해 더 많이

읽고 배우면서 물문경이 진실하다는 것도 느꼈다. 150쪽을 금방 다 읽었다. 목요일이 왔고, 다시 온 선교사들은 읽으라고 한 것을 다 읽었느냐고 물었다.

“그럼요!” 내가 말했다. “150쪽 전부 다 읽었어요!”

나는 더 알고 싶었다. 그들이 지혜의 말씀에 대해 가르쳤을 때, 나는 술을 끊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나는 처음으로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셉 스미스와 물문경에 관해 새로 발견한 간증을 전했다. 얼마 후에 나는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았다.

침례를 받은 후로 나는 48년 동안 계명을 지키며 교회에서 활동적이고자 노력했다. 나는 다시 결혼했고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봉사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부름을 받았다. 지금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다. 성전에 갈 때마다 나는 어둠에서 나를 끌어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

힐도 로실로 플로레스, 페루 피우라

지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두 명의 선교사가 멈춰서더니 나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의 성스러운 몸

머리사 위디슨
교회 집사

만일 우리가 자녀에게 육신의 영원한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면, 세상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대신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 몸이 성스럽다고 가르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세상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혼란스러운 메시지로 우리 자녀 주변을 소용돌이치며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완벽한 체형이란 어떤 것일까?

어떤 옷이 입기에 적합한가?

내 몸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

자녀가 자신의 몸을 선한 도구로 인식하는 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아이디어가 도움이 될 것이다.

몸은 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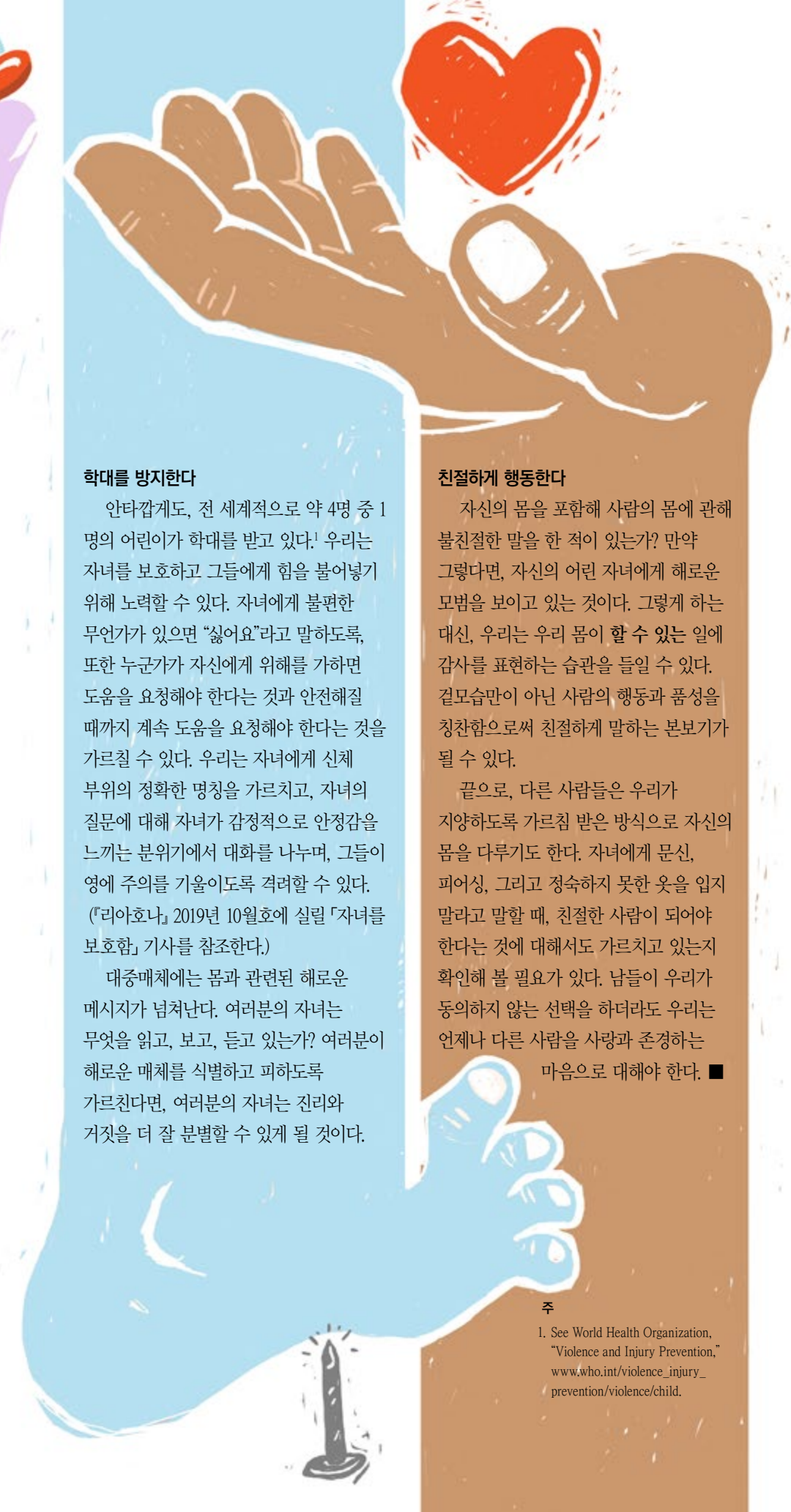
우리의 몸은 체형, 피부색, 체구, 능력치가 모두 다르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은 바로 모든 사람의 몸은 소중한 축복이라는 것이다. 육신을 갖는 것은 행복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 사람의 영혼은 영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교리와 성약 88:15 참조) 바울이 가르친 대로 우리 몸은 성신이 거하는 성전이다.

어린이도 어른처럼 자신의 외모가 어떤지, 또는 신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불완전한 신체도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가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우리 외모가 어떤지 걱정하거나 우리 몸을 남과 비교하는 대신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에 집중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부활할 것이며, 우리의 몸은 “적절하고도 완전한 구조로 회복[될 것이다.]”(앨마서 40:23)

자신의 몸을 돌본다

어린이들이 건강한 습관을 키워 나간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평생토록 축복이 될 것이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가 먹는 음식, 신체 활동, 위생 습관, 몸을 돌보는 여러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건강해지도록 격려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훌륭한 결정을 모범으로 삼는 가정환경을 만들 수 있다. 애정 행위와 성장에 따른 신체 변화를 개방적이면서도 수치심을 주지 않도록 토론하는 것도 그에 포함된다.





학대를 방지한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약 4명 중 1명의 어린이가 학대를 받고 있다.¹ 우리는 자녀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자녀에게 불편한 무언가가 있으면 “싫어요”라고 말하도록, 또한 누군가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과 안전해질 때까지 계속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 우리는 자녀에게 신체 부위의 정확한 명칭을 가르치고, 자녀의 질문에 대해 자녀가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영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격려할 수 있다. (『리아호나』 2019년 10월호에 실릴 「자녀를 보호함」 기사를 참조한다.)

대중매체에는 몸과 관련된 해로운 메시지가 넘쳐난다.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을 읽고, 보고, 듣고 있는가? 여러분의 해로운 매체를 식별하고 피하도록 가르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진리와 거짓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친절하게 행동한다

자신의 몸을 포함해 사람의 몸에 관해 불친절한 말을 한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해로운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겉모습만이 아닌 사람의 행동과 품성을 칭찬함으로써 친절하게 말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끝으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지양하도록 가르침 받은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다루기도 한다. 자녀에게 문신, 피어싱, 그리고 정숙하지 못한 옷을 입지 말라고 말할 때,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남들이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

주

1. See World Health Organization, “Violence and Injury Prevention,” 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violence/child.

어린이들을 위하여

이번 호 『친구들』

-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에요”(2019년 8월호, 친12쪽)

십 대를 위하여

이번 호 『리아호나』

- 청소년 섹션의 모든 기사(50쪽 참조)는 몸과 관련된 교리를 가르친다. 더 많은 자료를 보려면 youth.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제 2 장

충분한 영광

편집자 주: 다음은 『성도들』 시리즈 중 제2권인 『그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 제2장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7월호에 실린 이전 장에는 이주하는 성도들의 선발대인 '이스라엘 진영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그들은 나부에서 미시시피강을 가로질러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던 슈거 크리크에서 야영을 했다. 1846년 3월 1일에 브리검 영은 선발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브리검이 이끄는 성도들이 슈거 크리크를 떠날 무렵, 마흔세 살의 루이자 프렛은 나부에서 어린 네 딸을 데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3년 전에 그녀의 남편 애디슨은 태평양 제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애디슨이 봉사하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투부아이섬과 이곳 나부는 우편 업무가 서로 원활히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었다. 그래서 루이자와 애디슨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다. 애디슨이 보낸 편지는 대부분 몇 달 후에나 도착했고 몇 번은 일 년 후에 온 것도 있었다.

가장 최근에 받은 편지로 보아, 루이자가 서부로 출발하기 전에 애디슨이 귀환해서 함께 떠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이 분명해졌다. 십이사도의 지시에 따라, 그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이 있거나 후임자들이 그곳으로 갈 때까지 태평양 제도에 남게 되었다. 한때 브리검은 성도들이 엔다우먼트를 받게 되면 더 많은 선교사를 태평양 제도로 보내려 했으나 나부를 탈출하는 문제로 그 계획은 지연된 상태였다.¹

루이자는 남편이 없더라도 기꺼이 나부를 떠날 의지가 있었지만 막상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했다. 그녀는 나부도 성전도 떠나고 싶지 않았고, 우마차로 로키산맥을 넘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 서부로 가기 전에 먼저 캐나다로 가서 앞으로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연로한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만일 소들을 팔면 그 돈으로 부모님을 찾아가 뵙고 가족과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갈 배표도 살 수 있어서 육로로 가는 것을 온전히 피할 수 있었다.

루이자는 캐나다로 가는 쪽으로 거의 마음을 굳혔지만, 무언가 옳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육로 여행에 대한 걱정과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에 대해 브리검 영 앞으로 편지를 쓰기로 했다.





“소를 이용해 떠나는 것이 구원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몸과 마음을 바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다른 여성들만큼 오랫동안 불평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²

얼마 안 가서 브리검의 답신을 지닌 사람이 도착했다. “어서 오십시오. 소를 이용해 떠나는 것이 구원을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프랫 형제님은 우리가 자리를 잡을 황무지에서 합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자신의 가족이 없다면 실망이 크겠지요.”

루이자는 브리검의 권고를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자기 앞에 놓인 험난한 길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다지면서 죽든지 살든지 성도들의 본대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³

그해 봄, 인부들은 공식적으로 성전이 헌납될 5월 1일 전에 성전을 완공하고자 작업을 서둘렀다. 그들은 침례탕 주변에 벽돌 바닥을 깔고, 목재 장식을 제자리에 끼워 넣고, 벽을 칠했다. 작업은 온종일 계속되었으며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교회는 인부들의 임금을 치를 돈이 거의 없었으므로 성전이 주님께 헌납될 준비가 마무리되도록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임금을 일부 희생했다.⁴

헌납을 이틀 앞둔 날, 인부들은 1층 회당의 칠을 마쳤다. 이튿날에는 그 큰 방에서 먼지와 작업 잔재들을 쓸어 내고 헌납식을 치를 준비를 했다. 모든 방을 마지막 손질까지 모두 완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주님께서 성전을 거부하지는 않으실 것임을 그들은 알았다. 그들은 주님의 명을 완수했다고 확신하며 연단 위쪽 회당 동편 벽을 따라 이 문장을 적어 넣었다. “주께서 우리의 희생을 보셨다.”⁵

인부들에게 진 빛이 마음에 걸린 교회의 지도자들은 헌납식의 첫 번째 모임은 자선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들은 궁핍한 인부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임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1달러씩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5월 1일 아침, 미시시피강 서쪽에서 천막 생활을 하던 14세의 엘바이라 스티븐스는 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 강을 건넜다. 엘바이라는 가족과 함께 나무에 온 직후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고, 지금은 결혼한 언니와 살고 있었다. 엘바이라가 머무르던 막사에는 헌납식에 함께 갈 수 있는 이가 없었으므로 그녀는 혼자서 길을 나섰다.

서부에 또 성전을 지으려면 앞으로 여러 해가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안 사도들은 엘바이라를 포함하여 일부 어린 미혼자들에게 이전에 엔다우먼트를 집행했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오늘, 엘바이라는 다시 한번 계단을 올라 성전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1달러를 기부한 뒤 회당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⁶

모임은 합창단의 노래로 시작되었다. 그런 후 올슨 하이드가 헌납 기도를 올렸다. “당신의 영이 이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이가 그들의 가슴에 성스러운 영향력을 느끼고 그분이 친히 이 일을 도우셨음을 알게 되기를 간구합니다.”⁷

엘바이라는 회당에서 하늘의 권능을 느꼈다. 엘바이라는 모임이 끝난 후 막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권능을 다시 느끼고 싶었던 그녀는 이틀 뒤에 다시 나무로 돌아와 다음 모임에 참석했다. 올슨 하이드와 윌포드 우드럽은 성전 사업과 신권, 부활에 대해 설교했다. 모임을 마치고 전에, 윌포드는 성전을 두고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완공한 성도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이 성전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그 빛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성전을 지은 보상으로 충분한 영광입니다.”

모임이 끝나자 엘바이라는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서 막사로 돌아갔다.⁸ 나무의 성도들은 모임이 끝난 후부터 밤늦게까지 짐을 꾸리고 의자와 탁자, 그리고 다른 가구들을 모두 치웠다. 이 텅 빈 성전은 이제 주님의 손에 맡겨졌다.⁹

더 멀리 앞서 이동해 가던 브리검과 이스라엘 진영은 미주리강에서 멀지 않은 모스키토크리크란 곳에서 길을 멈추었다. 그들은 일정보다 두 달이나 뒤쳐져 있었으며, 굶주리고 극도로 궁핍한 상태였다.¹⁰ 그러나 브리검은 여전히 로키산맥으로 선발대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계절이 바뀌기 전에 일단의 성도들이 로키산맥에 당도해야 한다고 믿었다. 교회가 본거지 없이 떠도는 한, 적대 세력이 교회를 흩어 버리거나 길을 가로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¹¹

그러나 한 무리를 그렇게 갖추려면 현재 성도들이 가진 자원이 무리가 되리라는 것을 브리검은 알았다. 돈이나 식량을 넉넉히 가진 이도 드물었고, 아이오와에서는 일을 해서 돈을 벌 기회도 많지 않았다. 대평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성도들은 이동하는 동안 야끼던 물건들을 팔고, 식량과 물자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느라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서쪽으로 가면서 정착촌이 줄어들수록 이런 기회마저 점점 더 찾기 힘들어질 것이었다.¹²

브리검을 괴롭히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선발대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은 겨울을 보낼 장소가 필요했다. 오마하족을 비롯해 미주리강 서쪽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야영을 하며 겨울을 보내도 좋다고 했지만, 정부 당국은 성도들이 인디언 보호 구역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¹³

또한, 브리검은 나부에 있는 병들고 궁핍한 성도들이 교회가 자신들을 서부로 데려가 주리라고 믿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한동안 브리검은 성전을 비롯해 나부에 있는 귀한 것들을 팔아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때까지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¹⁴

6월 29일, 미군 장교 세 명이 모스키토크리크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브리검에게 전해졌다. 미국이 멕시코에 전쟁을 선포했으며, 이 장교들은 제임스 포크 대통령의 승인하에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가는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오백 명의 성도를 모집하여 한 대대를 조직하려 오고 있었다.¹⁵ ■

본 장의 나머지 부분은 saint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읽을 수 있다. 또한, 복음 자료실 또는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의 「리아호나」 8월호에서 이 기사를 디지털 버전으로 볼 수 있다.

주석에 나오는 주제는 saint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추가 내용을 볼 수 있다.

주

1. Louisa Barnes Pratt to Brigham Young, Mar. 24, 1846; Brigham Young to Addison Pratt, Aug. 28, 1845,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L; 또한 「성도들」 제1권, 제41장 참조. 주제: 루이자 반스 프랫
2. Louisa Barnes Pratt to Brigham Young, Mar. 24, 1846,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L; Louisa Barnes Pratt, Journal and Autobiography, 127.
3. Louisa Barnes Pratt, Journal and Autobiography, 127.
4. Mendenhall, Diary, Apr. 1-4, 1846; Samuel W. Richards, Journal, Apr. 22-29, 1846; Haight, Journal, Apr. 6, 1846; Morris, Autobiography, 40-41.
5. Samuel W. Richards, Journal, Apr. 23 and 29-30, 1846; Brigham Young, in Journal of Discourses, Jan. 1, 1877, 18:304; Lanman, Summer in the Wilderness, 31-33.
6. Barney, "Ruins of the Nauvoo Temple"; JSP.CFM:525, note 71.
7. Historian's Office, General Church Minutes, Thomas Bullock booklet no. 8, May 1, 1846.
8. Barney, "Ruins of the Nauvoo Temple";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the Church, volume 15, May [1], 1846, 34; Scott, Journal, May 1, 1846; Woodruff, Journal, May 1 and 3, 1846.
9. Holzappel and Cottle, "Visit to Nauvoo," 11. 주제: 나부 성전
10. Bennett, Mormons at the Missouri, 45. 주제: 개척자 이동로
11.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the Church, volume 15, June 28, 1846, 87-89; Brigham Young to William Huntington and Council, June 28, 1846,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L.
12. Orson Pratt, Journal, Feb. 1846; Mar. 6, 1846; June 19, 1846; see also Bennett, Mormons at the Missouri, 32-33.
13. Brigham Young to William Huntington and Council, June 28, 1846,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L.
14. "Conference Minutes," Times and Seasons, Nov. 1, 1845, 6:1011; Orson Pratt, Journal, Apr. 28-29, 1846; Brigham Young to Jesse Little, Jan. 20, 1846; Jesse Little to James K. Polk, June 1, 1846, Jesse C. Little Collection, CHL.
15.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the Church, volume 15, June 29-30, 1846, 89-90; Quaipe, Diary of James K. Polk, 444-50; Brigham Young to "the High Council of the Church," Aug. 14, 1846,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L; see also Arrington, Great Basin Kingdom, 21. 주제: 멕시코-미국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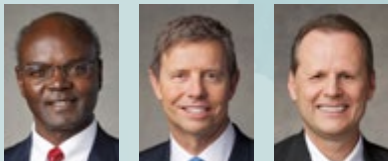
몰몬 대대로 알려진, 거의 500명에 달하는 후기 성도 남성들은 미국 군대에서의 복무를 지원하고 캘리포니아로 갔다.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제 일회장단은 미국 및 캐나다의 일곱 지역이 세 개 지역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변경 사항 및 다음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은 8월 1일부터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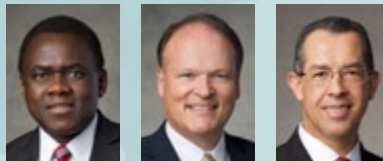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은 지역 회장단이 “각 지역의 독특한 필요 사항에 집중하고, 지역 및 현지 지도자들에게 권고와 지침을 준다”고 설명했다. ■

아프리카 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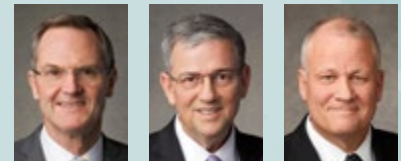
조셉 더블유 시타티 제1보좌
에스 마크 파머 회장
조니 엘 코흐 제2보좌

아프리카 서



에드워드 듀브 제1보좌
마커스 비 내쉬 회장
우고 이 마르티네스 제2보좌

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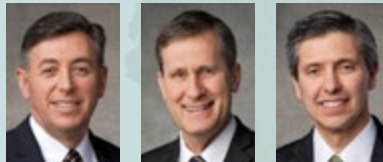
피터 에프 웨르 제1보좌
데이비드 에 프 에번즈 회장
데이비드 피 호머 제2보좌

북 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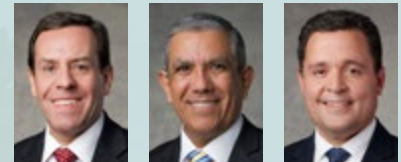
다카시 와다 제1보좌
최윤환 회장
엘 토드 버지 제2보좌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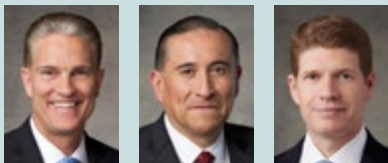
아딜슨 드 파울라 파렐라 제1보좌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 카이티스 회장
호아킨 이 코스타 제2보좌

카리브해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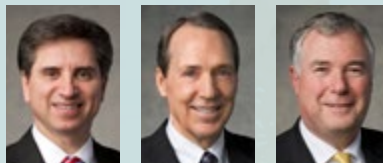
에두아르도 가바렛 제1보좌
호세 엘 알론소 회장
호르헤 엠 알바라도 제2보좌

중앙아메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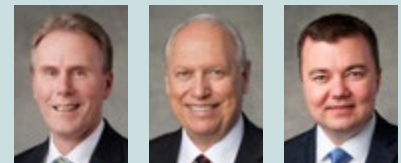
브라이언 케이 테일러 제1보좌
후안 에이 우세다 회장
앨런 알 워커 제2보좌

유럽



마시모 데 페오 제1보좌
게리 비 사빈 회장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제2보좌

유럽 동



한스 티 보움 제1보좌
크리스토펬 골든 회장
알렉시 브이 사마이킨* 제2보좌

멕시코



라파엘 이피노
제1보좌



아날포 발렌주엘라
회장



존 시 핑그리 이세
제2보좌

중동/ 아프리카 북



래리 에스 캐처
제1보좌



앤소니 디 퍼킨스
회장



제프리 에이치 싱어*
제2보좌

북미 중앙



치 홍 (썸) 윙
제1보좌



에스 기포드 닐슨
회장



매튜 엘 카펜터
제2보좌

북미 북동



앨런 디 헤이니
제1보좌



랜들 케이 베네트
회장



더블유 마크 배셋
제2보좌

북미 남동



번 피 스탠필
제1보좌



제임스 비 마르티노
회장



후고 몬토야
제2보좌

북미 남서



에이드리언 오초아
제1보좌



폴 비 파이퍼
회장



카일 에스 맥케이
제2보좌

북미 서



스코트 디 와이팅
제1보좌



케빈 더블유 피어슨
회장



외르크 클레빙가트
제2보좌

태평양



케이 브렛 내트레스
제1보좌



이안 에스 아던
회장



가즈히코 야마시타
제2보좌

필리핀



타니엘라 비 와콜로
제1보좌



에벤 에이 쉬무츠
회장



스티븐 알 뱅거터
제2보좌

남미 북서



호르헤 에프 세바요스
제1보좌



엔리케 알 팔라벨라
회장



마티아스 헬트
제2보좌

남미 남



마크 에이 브래그
제1보좌



벤저민 데 호요스
회장



후안 파블로 비야르
제2보좌

유타



랜디 디 펄크
제1보좌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회장



월터 에프 곤잘레스
제2보좌

* 지역 철십인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생각하며

여러분은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외모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잡아내는가? 실수했거나 약점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확대하는가? 거울에 비친 모습은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의 얼굴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자신이 보이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보이는가? 연민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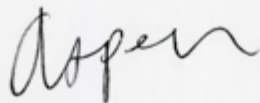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기비판과
완벽주의, 해로운 문화적 태도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려 노력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 여러분은 신체상에
관한 기사를 읽으며 자신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경전과 성전에서 찾은 진리를 통해 신체상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몇 가지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다.(44쪽 참조) 온라인
전용 기사에서는 고통스러웠으나 삶의 전환점이 된 출산이라는
여정을 거친 산드라 바네사가 자신의 몸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48쪽에서 마커스는 자신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극복한
방법들을 이야기한다. 또한, 그는 우리 자신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를 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건강 및
외모에 관한 세상의 철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건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극단으로 치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체구나 체형에서 나오지 않음을 기억하자.
여러분의 가치는 무한하며, 그 가치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진실한,

애스펜 스탠더



최고의 조언 ...

신체상을 개선하는 것에 관하여
청년 성인들이 전하는 최고의 조언을
들어보자.

“누가 여러분의 몸에 관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지만 생각하세요. 저는
나쁜 생각들이 사탄에게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려 노력해요. 사탄은 육체가
없기 때문이죠.”

—로런 애플비, 호주 퀸즐랜드

“그리스도와 자신의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저는 저에 대해 생각하는 걸
그만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에밀리 스페스, 미국 유타주

“저는 제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봐요. 저는 아이를
낳고, 걷고, 달리고, 놀고, 노래를
부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죠.”

—블라이드 브레이디, 미국 유타주

스마트폰 및 비디오 게임 중독을
포함하여,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해 여러분이 받은 가장 훌륭한
조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2019년 8월 31일까지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주제에 관한
기사를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글이나
피드백을 **ChurchofJesusChrist.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 성인 저자들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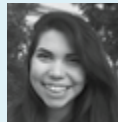
애스핀 스탠더
편집자이며, 종종 글을
쓰는 독서광이다. 애스핀은
하이킹, 여행, 초콜릿,
피아노 연주를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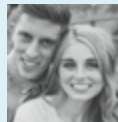
마커스 페이지는 기술
스타트업 회사의 채용
담당자이다. 마커스는
운동, 노래 부르기, 그리고
아내 세라와 그들이 키우는
고양이 세 마리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샌드라 바네사 바르가스
코르발란**은 멕시코
멕시코시티 출신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살렛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샌드라는 유튜브로, 초보
엄마들 돕기, 요가, 그림 그리기,
그리고 남편 미케아스와 딸 소피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한다.



오브리 존슨은 일생의
연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오브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돕는 것을 좋아한다.



이번 호 이야기

44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애스핀 스탠더

44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마음가짐: 부정적인 자아상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
마커스 페이지



온라인 전용

내가 임신과 출산 후에 나의
몸에 감사하는 이유
샌드라 바네사 바르가스
코르발란

자신에게서 기쁨을 찾음
오브리 존슨



아래에서 이 기사들과 그 외의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본다.

-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 (복음 자료실 앱의 “청년 성인”
섹션에 있는)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 **facebook.com/liahona**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우리의 몸은
과시하거나, 칭찬받거나,
혹은 편향된 매력의
기준에 따라 평가받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창조되었다.



애스펜 스탠더

교회 잡지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특정 체격이나 몸매에서 벗어나는 몸은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접한다. 일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유기농 재료로 만든 식물성 스무디만 먹고 하루에 16킬로미터를 달려야만 “완벽한” 몸을 만들어 친구와 가족, 낯선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암시하는 듯하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몸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들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다. 자신이 완벽해질 수 없다고, 다른 말로 해서 인스타그램 속 모델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사랑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것만큼 진실과 동떨어진 것도 없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것은 과시하거나 칭찬받거나 혹은 편향된 매력의 기준에 따라 평가받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창조되었다.

신성한 진리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의 자녀에게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제시하셨다. 그분 계획에는 지상에서 필멸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육신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육신을 입은 우리는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복음을 배우고,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의식들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며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창세기 1:27)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과 뼈의 몸이 있으시다.(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따라서 육신을 받은 여러분도 그분처럼 될 잠재력이 있다.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담는 불편한 그릇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승영에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특정 몸무게를 유지하거나 특정 사회에서 정해진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일치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가족을 이루며, 성약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부름받았다.

사탄의 거짓말

육신을 갖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이라면, 왜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몸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통받거나 외모에 집착하는 것일까? 사랑과 보살핌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혐오하는 것일까?

우리의 몸은 특권이자 선물이다.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거나 감사히 여기지 못하도록 사탄이 영향을 끼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그에게는 육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사탄은 구원의 계획을 거부하여 하늘에서 쫓겨났기에 필멸의 놀라운 기쁨이나 고통을 절대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의 몸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세속적인 “미”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험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극단적인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결점 하나 없이 매력적이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의 관점은 균형을 잃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불충분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며 혐오하도록 대적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사탄은 우리가 하늘 부모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외모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게 한다. 대적은 몸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들, 즉 우리의 가치, 타인 및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안다. 대적은 우리가 외모나 몸무게에 사로잡혀서 행복의 계획을 진척하기 위해 행하도록 부름받았던 일들을 잊어버리기를 원한다.

힘을 부여받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우리가 성약의 길을 따라 발전하는 데 필수적이다. 육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루시퍼를 따를 것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축복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큰 힘을 받게 된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에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으며, 성전에서 우리는 육신의 목적과 잠재력에 관한 아름다운 진리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신권 의식에 몸소 참여하는 것은 영생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사업을 행하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식을 행할 수 없다.

우리는 몸이 있는 것이 진정한 특권임을 깨달음으로써 신체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감을 줄이고, 그러한 기분 대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행복한 재회

우리 각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을 것이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 잠시 동안 분리될 것이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신체의 각 사지와 관절, 머리털은 “그 적절하고도 완전한 구조로 회복”될 것이다.(앨마서 40:23) 나는 우리가 새로워진 힘과 활력을 지닌 채 다시 만나고, 냄새 맡고, 듣고, 볼 그 시간이 행복한 재회가 될 거라 상상해 본다. 가족을 안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도 그려 본다. 마지막 급성장기 때 생긴 나의 튼살 자국이나 허리를 둘러싼 불필요한 지방층을 걱정하는 모습은 그 모습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나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과 서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그리고



육신을 지닌 상태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 본다.

(니파이후서 9:4 참조)

우리에게 육신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려 함이다.(교리와 성약 88:19 참조)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망과 죄로부터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 가능해졌다. 우리 몸의 외형에 집착하는 대신, 우리가 행하도록 부름받은 일들을 수행하는 데 우리의 육신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생과 다음 생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신체상을 개선하는 비결

1. **감사하는 법을 연습한다.** 자신의 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떠올려 본다. 팔이 있기에 여러분은 농구를 하고, 힘든 하루를 보낸 친구를 안아 주고, 갓난 아기를 안아 줄 수 있다. 여러분의 다리는 걷고, 춤추고, 달리고, 재주넘기를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 필요한 힘을 준다. 여러분의 폐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빈틈없이 일하며, 온몸에 산소를 전달하기 위해 숨을 쉬는 매 순간 팽창하고 수축한다. 여러분의 심장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뛰고, 여러분의 뇌는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번개같은 속도로 일한다. 여러분의 몸이 행하는 기적을 생각해 볼 때, 이에 대한 감사함을 어떻게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2. **연민을 지닌다.** 첫째와 둘째 되는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마태복음 22:37~39 참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연민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진정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은 친구나 가족이 너무 똥똥하거나, 말랐거나, 키가 작거나, 주름이 많다고 하여 그들을 놀릴 것인가? 물론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것과 똑같은 연민을 자신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자신을 돌본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 모두를 양육하고 여러분의 몸에 매일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할 음식을 먹는다. 기분을 좋게 하고, 육체라는 선물에 감사함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한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건강한 방법을 찾고, 꼭 잠시 쉬면서 한숨을 돌리고 안정을 취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몸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다!
4. **성전에 참석한다.** 성전 의식보다 우리 몸의 중요성을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곳은 없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 성전 의식을 받으면서 영적 및 육체적인 축복을 약속받았고, 영의 세계에 있는 이들을 위해 대리 의식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축복을 다시 상기할 수 있다.

“충분히 잘 하고 있다”는 마음가짐: 부정적인 자아상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

나는 우울증과 불안감 때문에 신체적인 건강을 잃었고, 그 결과 나 자신의 자아상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방법을 따르면서 나는 그런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마커스 페이지

“**넌** 아직 멀었어.”
우리 집 지하실 벽에는 이런 메모가 걸려 있다. 지하실에는 내가 운동을 하는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때마다 그 생각을 적어서 게시판에 꽂아 둔다. 전에 겪었던 어려움과 예전의 나를 떨쳐 버린다는 생각을 상기하려는 취지에서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넌 아직 멀었다는 말을 오랫동안 해 왔었다. 나는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렸고, 신체적인 건강마저 잃었었다. 거기에서 도저히 헤어 나올 수가 없었다. 내가 쓸모 없이 느껴졌다. 희망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나는 하나님이나 다른 누구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행동이든 재능이든, 또는 나처럼 자아상 때문이든 청년 성인인 우리 중 대다수는 아마도 스스로의 부족함을

실감할 때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 나는 내 인생이라는 책에서 꼭꼭 숨겨 두었던 부분을 드러내 보이기로 다짐했다. 이를 실천하면서, 나는 오랜 시간 내 안에 존재해 온 부정적인 자아상을 키워 낸 몇 가지 요소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을 극복할 다음의 세 가지 방법 또한 더불어 찾아냈다.

1. 비교하지 않는다

언젠가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라는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명언을 읽은 적이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만인의 삶이 자유로이 공유되는 세상에서, 나는 내가 친구와 가족, 사회 저명인사와의 비현실적인 비교 상대로 계속해서 내몰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의 가장 큰 결점은 다른 사람이 이룬 최고의 성취와 나의 성취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다보면 종종 내가 무능하게 느껴졌다. 마음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연하던 그때, 마음가짐을



바뀌어만 한다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나는 모든 형태의 소셜 미디어를 멀리하고, 나에게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려 노력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자신의 단점을 타인의 장점과 비교했던 오랜 습관을 곧 그치게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마음속으로 축하해 주기 시작했다! 이런 노력으로, 오랫동안 쌓아 왔던 교만과 질투의 벽이 즉시 사라졌다. 그리고 나니 정신이 맑아지고 영원한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겼다.

2.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

우리가 불완전한 필멸의 존재라는 무거운 깨달음은 때때로 우리의 지상 경험에 우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나 자신과 육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은 마침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소모시켜 버렸다. 불완전함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주께로 돌이키기보다는 파괴적인 행위에 의지하곤 했다. 그런 행위는 때로 내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의 무게를 너무도 무겁게 만들었고, 급기야 나는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결국 내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었다. 겸손과 회개를 통해 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좀 더 규칙적으로, 또한 목적을 두고 읽고,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 더 꾸준히 기도하려 노력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께 돌이키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때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없다. 반대로,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보다 우위에 두려 할 때는 시련이 버겁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매사를 더욱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부적합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대신 나라는 사람이 지닌 가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3. 완전한 사랑을 키운다

모로나이서 8장 16절에는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이 있다. 완전한 사랑은 우리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와 모든 주변 사람의 영원한 가치를 이해할 때 비로소 손에 짚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완전한 사랑은 현미경을 들이밀고 우리가 가진 결점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것은 외적인 모습에 따른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다. 완전한 사랑은 우리가 자신과 타인의 과오를 용서하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데 집중하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나는 단순히 사랑하려 시도하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 자신을 가득 채우고 그것이 내 일부가 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본질을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의 신성한 본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길도 알 수 있다.

정신적, 신체적, 영적인 건강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믿는 신앙이 강해졌다. 때로는 극심한 슬픔으로 고통받기도 했지만,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을 그만두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관념이 뚜렷해졌고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힘은 무한하다.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랑을 발견할 시간을 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우리가 충분히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우리의 몸: 소중히 여겨야 할 위대한 선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그 지식 덕에 저는 우리의 몸이라는 은사가 경이로운 기적임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몸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여정에서 우리 개개인을 도우시고자 우리의 영이 거할 성막으로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몸이 있기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침내 더욱 그분과 같이 되고, 다시 돌아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험의 상태에서 육신을 먼저 받지 않고서는 그 위대한 축복을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¹ 살과 뼈로 된 영화롭고 완전한 몸을 갖고 계십니다.²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³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각자 필멸의 몸을 얻게 되었습니다.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목적의 일부입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일과 영광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⁵



이번 호 이야기

- 50 우리의 몸: 소중히 여겨야 할 위대한 선물
러셀 엠 넬슨 회장
- 56 순결의 법이란 무엇인가?
조슈아 제이 퍼키
- 58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
- 60 지혜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과 의미하지 않는 것
- 62 질의응답: 내 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64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육신이라는 선물을 존중하십시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삽화: 스토퍼 리아프라스니더

우리는 이원적인 존재이다

사람은 누구나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⁶, 영과 육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과 육을 확실히 이해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영향을 받아 선을 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필멸의 존재로 이 지상에 거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영은 전세에서 순진무구한 상태로 존재했으며⁷ 육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⁸ 영은 육신에 생기와 인격을 제공합니다.⁹ “모든 영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는 더욱 미세하거나 순수 [합니다.]”¹⁰

영의 발전은 영원한 결과를 낳습니다. 훗날 우리는 우리 영의 속성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¹¹ 그러한 속성에는 정결, 고결함, 동정심, 사랑 등이 있습니다.¹² 여러분의 영은 육신 안에 거함으로써 영원한 진보에 필수적인 방식으로 이런 속성을 발전시키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¹³

영과 육신은 하나로 결합될 때 지극히 높은 가치를 지닌 생명, 곧 살아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과 몸이 곧 사람의 영혼 [입니다.]”¹⁴ 두 가지 모두 지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소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필히 경건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¹⁵

어떠한 능력을 타고났든지 간에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으로 된 성막이며, 우리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연구하다 보면 그것이 신성하게 계획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몸은 위대한 은사이다

우리 몸의 경이로움은 흔히 간과되거나 인정받지 못하곤 합니다. 체격이나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느껴 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자신의 외모가 지금보다 매력적인 모습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직모인 사람은 곱슬머리를 원합니다. 반대로, 곱슬머리인 사람은 직모를 원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을 볼 때, 그 자체의 위대함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근깨나 제멋대로 뻗치는 머리, 잡티는 보지 말고,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 즉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때¹⁶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육체라는 은사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몸과 관련된 놀라운 수많은 특성은 여러분에게 “신성한 성품[속성]”이 있음을 증거합니다.¹⁷

몸의 각 기관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입니다. 눈에는 자동 초점 조정 렌즈가 있습니다. 신경과 근육은 두 눈을 조정하여 단일 3차원 이미지를 만듭니다. 눈은 본 것을 기록하는 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신은 하나로 결합될 때 지극히 높은 가치를 지닌 생명, 곧 살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근깨나 제멋대로 뺨치는 머리, 잡티는 보지 말고,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심장은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한 펌프입니다.¹⁸ 심장에는 혈류 방향을 조정하는 네 개의 정교한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은 하루에 10만 번, 즉 일 년에 3천 6백만 번 이상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합니다. 판막은 질병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압력을 거의 무한히 견딜 수 있습니다.

신체 방어 체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몸은 고통을 인식합니다. 감염에 대응하여 항체를 생성합니다. 피부는 보호 기능을 합니다. 피부는 너무 뜨겁거나 찬 것 때문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몸은 노화된 세포를 자체적으로 재생시킵니다. 몸은 상처, 멍, 부러진 뼈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몸의 생식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성스러운 은사입니다.

몸은 염분, 수분, 당, 단백질,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수많은 구성 요소의 양을 끊임없이 조절합니다. 조절 체계는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관리됩니다.

인간의 성스러운 운명을 달성하기 위해 완벽한 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정말 훌륭한 일부 영들은 연약한 몸에 거합니다.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이유는 그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충실하고 순종적인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¹⁹

모든 필멸의 삶은 죽음으로 마감됩니다. 결국에는 “영과 육신은 다시 …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이요, 사지와 관절은 … 그 본래의 구조로 회복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²⁰ 그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²¹ 인체의 작용에 대해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그 위엄과 권능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봅니다.”²²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주도해야 한다

우리의 몸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원한 영이 거하는 거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지상 생활과 그에 따른 시련 및 시험을 경험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살아 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일부 시험은 육체의 욕정이 그 안에 거하는 영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및 우리가 지상에 있는 목적을 알고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는 무언가가 몸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일은 신성한 것을 더럽히는 행위임을 인식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각이나 촉각 또는 청각과 같은 감각이 뇌에 불결하거나 합당치 못한 기억을 전달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불경스런 일입니다. 우리는 순결을 소중히 여기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곧 [우리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을 피할 것입니다.²³ 우리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즉 영혼 전체를 교화해 주는 속성을 “따”를 것입니다.²⁴

주께서는 술, 담배, 해로운 약물과 같은 물질을 금하셨습니다. 또한 외설물의 해악과 불순한 생각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저속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는 중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체적 또는 정신적 중독은 육신과 영 모두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런 족쇄로부터 회개하는 과정은 필멸의 육신의 도움을 받아 자제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생 동안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 몸에 여러 욕구를 불어넣으신 것은 인류를 영속시키고 그분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음식과 물과 사랑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지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진 욕구의 힘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먹고 마셔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먹고 마시도록,

가장 돈독한 사랑의 표현을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 사용하여 사랑의 표현을 더럽히도록 유혹합니다.

자신의 신성한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런 욕구를 조절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창조된 우리 몸에 이로운 것만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감사히 인정하고, 우리 자신만의 성전인 육신의 장엄함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보살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서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구주를 따르십시오

가장 높은 운명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구주를 본받으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²⁵ 우리의 가장 고귀한 소망은 우리의 영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함]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²⁶

영적이거나 육체적인 유혹, 시련, 괴로움 없이 지나가는 인생의 계절은 어디에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제심을 키운다면, 육체적인 욕망은 우리 영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실현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된 우리의
몸에 이로운 것만을 ...
생각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위대한 창조물인 만큼,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²⁷

누구든 결코 피해 갈 수 없는 큰 시련이 닥칠 때, 다음과 같은 구주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²⁸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고한 창조물인 위대한 육신을 가졌다는 놀라운 축복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은 위대한 창조물인 만큼,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원한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임하신 방법에 따라 우리 몸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 협착하고 좁은 길”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²⁹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십니다. 그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생명이요 빛이[십니다].”³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유산, 즉 육신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받게 되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유산입니다. 우리의 유산은 성스러우며,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분께서 주신 많은 은사와 그 유산을 언제나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

주

1. 사도행전 17:27~29 참조.
2. 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3. 예레미야 1:4~5; 히브리서 12:9; 모세서 6:51; 아브라함서 3:22~23 참조.
4. 창세기 1:27; 2:7; 고린도전서 15:44; 모세서 2:27; 3:7 참조.
5. 모세서 1:39.
6. 교리와 성약 88:15 참조.
7. 교리와 성약 93:38 참조.
8. 엘마서 40:11; 아브라함서 3:18 참조.
9. 욥기 32:8 참조.
10. 교리와 성약 131:7.
11. 몸이 아니라 영이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영혼의 구성 요소이다. 영이 없으면 몸은 죽는다.(야고보서 2:26 참조)

12. 그러므로 선이나 악을 선택하고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지닐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 모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바로 영이다.(엘마서 41:3~7 참조)
13. “신앙,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애, 겸손, [그리고] 근면” 등.(교리와 성약 4:6)
14. 니파이후서 2:11~16, 21~26; 모로나이서 10:32~33 참조.
15. 교리와 성약 88:15.
16. 고린도전서 6:19~20; 또한 교리와 성약 93:35 참조.
17.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18. 베드로후서 1:4.
19. 심장은 하루에 약 7,570 리터의 피를 뿜어 낸다.
20. 아브라함서 3:25~26 참조.
21. 엘마서 11:43; 또한 전도서 12:7; 엘마서 40:23; 교리와 성약 138:17 참조.

21. 모로나이서 10:32 참조.
22. 교리와 성약 88:47.
23. 디모테전서 6:9
24. 디모테전서 6:11. 이어서 디모테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나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25. 제3니파이 27:27.
26. 에베소서 4:13.
27. 누가복음 22:42.
28. 요한계시록 3:21.
29. 니파이후서 31:18.
30. 엘마서 38:9; 또한 교리와 성약 11:28 참조.



매우 성스러운
이 계명을
자세하게 알아보자.



순결의 법이란 성적인 깨끗함을 말한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한다는 것은 “결혼 전에 어떠한 성적 관계도 허용하지 말고,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에게 온전히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¹

하지만 정결하고 순결하다는 것은 성관계 이상의 문제이다. “다른 사람을 존경심으로 대하고, 자신의 음욕이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결혼 전에는 옷을 입은 채로나 입지 않은 채로 정열적인 입맞춤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 위에 올라가거나 은밀하고 성스러운 부분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체에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²

두 사람이 서로 정말 좋아하고 둘 다 특정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표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다른 사람과 주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면 여러분은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혼 생활 밖에서의 성관계나 성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어떠한 행동도 금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주님은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여기신다. “선지자 엘마는 성적인 죄는 살인과 성신을 부인하는 것 이외의 어느 죄보다도 심각한 죄라고 가르쳤다.(앨마서 39:3~5 참조)”³

여전히 “열정적인 입맞춤”이 무엇인지, 혹은 “성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면, 부모님이나 감독님, 또는 신뢰할 만한 다른 성인과 이야기한다. 그들과 대화한다면, 올바른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이해하고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면, 영의 인도를 구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주 기도한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일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만약 성적인 죄를 범했다면, 감독님과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회개하는 동안 힘과 평안을 얻도록 도와줄 것이다. 회개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순결의 법이란 무엇인가?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집사

여러분은 “순결의 법”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가? 아마도 여러분의 머릿속엔 뒤죽박죽 섞인 서로 다른 설명들이 떠오를 것이다. 온갖 종류의 미디어와, 때로는 친구와 가족들조차, 순결의 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운다. 그리고 세상은 주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친다.

그렇다면 순결의 법이 의미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

순결의 법이란 성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칭하는 주님의 용어이다.

여전히 무언가 명쾌하지 않은가? 그럼,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정결하고
순결하다는 것은
성관계 이상의
문제이다.
그것은 또한
존중의 문제이다.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도 잘못된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정상이다. 정말이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구주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 [혹은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경고하셨다. (마태복음 5:28) 이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열쇠는 바로 이것이다.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 누군가에게 음욕을 품거나 그들에 대해 부적절한 생각을 하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⁴

그것은 우리가 외설물이나 다른 저속한 매체를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한 것들은 언제나 이기적이며, 영을 쫓아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도록 유혹한다.

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 생기거나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결혼의 일부분이다. 건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강한 이끌림을 느끼며, 서로를 섬기고 축복해 주고 싶어 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는 육체적으로 친밀한 행위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고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⁵

애정 행위는 올바른 때와 장소에서만

애정 행위는 여러분이 장차 하게 될 미래의 결혼 생활에서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은 성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다.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은 성신의 영향력을 더 가까이 느낄 것이며, 자신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받고, 미래에 주어질 놀라운 축복들을 받도록 준비될 것이다.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35쪽.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36쪽.
3. 『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92쪽.
4. 이 주제에 관한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사랑 VS. 욕정』, 『리아호나』, 2016년 10월호, 31~35쪽을 읽는다.
5.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35쪽; 강조체 추가.



각각 기관을 통해 정보를 받으면, 그 신호는 여러분의 신경에서 뒤까지 시속 16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이동한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촉각과 청각에 더 잘 반응하기 위해 뇌의 시피질이 변화한다. [시피질: 대뇌 껍질의 뒤통수염에서 시각에 관여하는 부분—옮긴이]

인간의 눈을 수천 가지 색상을 구별할 수 있고, 코는 수천 가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



청각은 인간이 느끼는 감각 중 가장 빠르다. 뇌는 눈을 깜박이는 속도보다 열 배 빠른 0.05초의 짧은 소리도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의 심장은 평균 수명 동안 30억 회 이상 뼉다. 즉, 심장은 매일 10만 번 이상 뼉동한다.

뇌는 작은 전구 하나를 밝힐 수 있는 양의 전기를 생산한다.

면역 체계는 편도와 같은 분비선, 그리고 흉선과 비장 같은 기관을 이용하여 해로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다.

오늘날 최고가 디지털 카메라는 400메가픽셀을 촬영할 수 있지만, 인간의 눈은 576메가픽셀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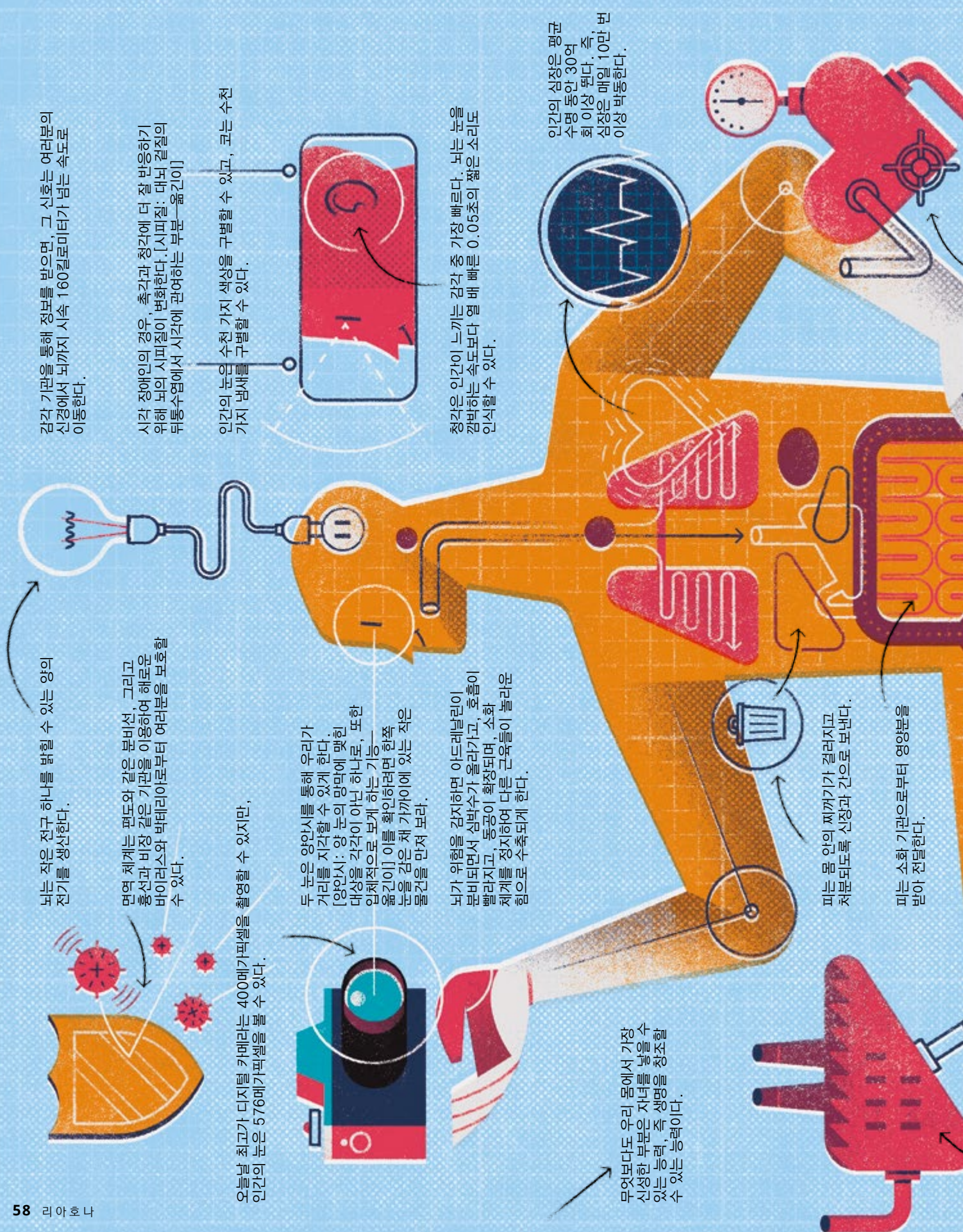
두 눈은 양안시를 통해 우리가 거리를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양안시: 양 눈의 망막에 맺힌 대상을 각각이 아닌 하나로, 또한 입체적으로 보게 하는 기능—옮긴이] 이를 확인하려면 한쪽 눈을 감은 채 가까이 있는 작은 물건을 먼저 보라.

뇌가 위험을 감지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장되며, 소화 체계를 정지하여 다른 근육들이 놀라운 힘으로 수축되게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서 가장 신선한 부분은 자태를 낼 수 있는 능력, 즉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다.

피는 몸 안의 찌꺼기가 걸러지고 처분되도록 신장과 간으로 보낸다.

피는 소화 기관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전달한다.



간은 500개 이상의 특수한 과정을 담당한다. 트라우마 또는 수술로 간 중 3분의 2를 절제하는 경우에도 4주만 지나면 본래 크기로 다시 자라난다.

부러진 뼈는 다시 붙을 수 있다.

인간의 뼈는 튼튼하다. 발에 있는 26개의 작은 뼈는 여러분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체중을 지탱해 준다.

“우리의
몸은
우리 영의
도구입니다.”

President Boyd K. Packer (1924 - 2015),
President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1997), 211.

심장은 분당 5.5리터의 피를 뿜어낸다. 따라서 인간의 평균 수명 동안 유조 탱크 열차 200량은 죽히 채울 수 있는 3억 8천만 리터의 피를 뿜어내는 것이다.

피는 폐에서 다른 기관으로 산소를 공급한다. 폐는 이산화탄소를 폐로 보내어 내쉬게 한다.

피부는 항상 물질을 생성하여 몸에 침입하는 미생물에 대항하는 첫 번째 방어막이 되어 준다. 피부에 내려오는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금방 죽는다.

피부는 몸의 일부에서 다른 일부로 이식해도 자랄 수 있다. 피부는 인간의 신체 중 가장 큰 기관으로, 스스로 끊임없이 재생한다.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의 몸은 경이로운 창조물이다. 몸이 있기에 우리는 그림 그리기, 하이킹, 하이킹, 미식축구, 뜨개질, 플루트 연주, 그리고 그밖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50쪽에서 선지자가 설명한 대로 “여러분의 몸은 어떠한 재능을 타고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인 ... 여러분의 모습의 위대함을 상고해 [본다].”



지혜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과 의미하지 않는 것

「리아호나」 담당자들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과 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답게 보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복장을 갖춰 입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아주 다른 표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표준은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러셀 엠 벨슨 회장,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ChurchofJesusChrist.org.

지혜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

우리를 신체적,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께서 주신 건강의 율법.

취하지 말아야 할 것	기쁘게 취할 것
알코올이 든 음료	과일
담배	채소
차와 커피	고기(적당히)
해롭거나 중독성이 있는 물질	곡물

교리와 성약 89편 참조. 또한 topic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복음 주제 “지혜의 말씀” 참조.

지혜의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것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1924~2015) 회장은 지혜의 말씀이 다음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다.

1.

우리가 언제나
건강할 수 있다는 보장이다.

“지혜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건강을 약속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타고난 육신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여러분의 정신이 미세한 영적 속삭임에 민감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2.

여기에 나온 것만
지키면 된다.

“계시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이 마시거나 씹거나 들이쉬거나 체내로 주입하는 것들 중에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습관성 물질들이 많습니다.”

3.

건강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해도 되는 이유이다.

“건강이나 영양 섭취, 그리고 특히 의약품 사용 등의 문제에서 절제와 상식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극단적이거나 광신적이거나 일시적인 열광자가 되는 것을 피하십시오.”¹(일시적인 열광자란 모든 유행을 따르는 사람을 말한다.)

“사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지혜의 말씀을 어기면 더 행복해지거나 인기를 얻거나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일이 결단코 없게 하십시오.”² ■

약속된 축복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축복을 얻을 수 있는지가 나와 있다.

- 해로운 중독에서 자유로움
- 자신의 삶을 더 잘 조절함
- 더 건강한 몸
- 더 기민한 정신
- 성신의 인도
-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더 큰 능력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지혜의 말씀: 그 원리와 약속』, 1996년 4월 연차 대회, 번역 수정.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 25쪽.



“내 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육체라는 은사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몸과 관련된 놀라운 수많은 특성은 여러분에게 ‘신성한 성품[속성]’이 있음을 증거합니다.(베드로후서 1:4) ...

인간의 성스러운 운명을 달성하기 위해 완벽한 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 훌륭한 일부 영들은 연약한 몸에 거합니다.”

러셀 엠 벨슨 회장, 「육신: 소중히 여겨야 할 위대한 선물」, 「리아호나」, 2019년 8월호, 52, 53쪽.



여러분의 몸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몸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는 대신 그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세요.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함께 하셔서 제가 발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템퍼런스 비, 18세, 호주 빅토리아

몸을 잘 돌보세요

저는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제 몸을 돌본답니다. 몸을 돌보면 몸에 대해 더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축복해 주신 성전을 잘 관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신을 갖는 훌륭한 축복을 더 잘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게 돼요.

카밀 에이, 16세, 미국 플로리다주



몸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지에 대해(고린도전서 3 장 참조), 또 주께서는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사무엘상 16장 참조) 생각해 보세요!

비코 더블유, 17세,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제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하면서 힘들어했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친구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이 언제나 그의 곁에서 그를 사랑하고 지지해 준다는 사실이었어요.

매슈 브이, 16세, 미국 미주리주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나 싫어하는 점을

말할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제가 제 신체에 대해 어떤 의문을 갖는다 할지라도,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요. 우리 몸은 우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잘 돌보고 사랑해야 해요.

이그나시오 피, 14세, 아르헨티나 차코

몸은 여러분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 주지 않아요

몸은 나라는 사람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몸은 몸일 뿐이지, 한 개인이자 하나님의 영의 자녀인 여러분 자체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세일러 오, 18세, 미국 뉴욕주

좋아하는 활동을 하세요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개를 산책시키는 등 제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마다 저는 늘 제 몸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친구들과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활동을 할 때면, 저를 염려해 주고, 제 모습이 어떨든 간에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시된 의견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교회의 공식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한 육신은 어떠한 모습일까?

경전과 현대 선지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활한 육신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만질 수 있다. 부활한 육신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다.(누가복음 24:36~39 참조)

불멸한다. “이 죽어야 하는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키심을 받나니 …

다시는 죽을 수 없[을 것이다.]”(앨마서 11:45)

완전하다. “영과 육신은 다시 그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이요.”(앨마서 11:43)

“신체적 기형이 사라지고, 결함이 없어질 것이며, 남자와 여자는 영의 완전함, 곧 태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전함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Joseph F. Smith, Gospel Doctrine, 5th ed. [1939], 23)

아름답다. “부활한 남자나 여자보다 더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은 없습니다.”(The Teachings of Lorenzo Snow, ed. Clyde J. Williams [1996], 99)

사탄의 능력을 넘어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신의 부활을 가져오셨으므로 우리의 영은 “… 악마[에게] … 복종하[여] … 거지의 아비와 함께 머물며 그 자신처럼 비참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니파이후서 9:8~9)*

충만한 기쁨을 받을 수 있다. 부활하지 않고서 해의 영광의 기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과 원소는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충만한 기쁨을 받느니라.”(교리와 성약 93:33)

*멸망의 자식들은 제외.(교리와 성약 76:30~38 참고)

다음 질문

“제가 용서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9년 9월 15일 일요일까지 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사나 피드백 제출” 클릭)

명확한 표현이나 분량 조절을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선물을 존중하십시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0 | 생에서 얻는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삶, 즉 우리의 시간과 선택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헌납할 때 옵니다. (요한복음 17:1, 4; 교리와 성약 19:19 참조)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가장 높은 위치에 이르도록 들어 올려 주십니다.

헌납된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비할 수 없이 고귀하고 신성한 육신을 존중합니다. 필멸의 삶을 경험하는 주요 목적은 각 영이 육신을 얻어 영육을 모두 지닌 이원적 존재로서 도덕적 선택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육신은 또한 영과 육이 완전하게 결합되어 우리의 사랑하는 부활하신 구주를 보게 될 때만 얻을 수 있는 승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떤 분은 고통스럽고 짧은 삶을 영위하고, 또 어떤 분은 신체가 기형이 되거나 손상되며, 또 어떤 분은 목숨만을 간신히 부지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각 영에게 인생은 충분히 긴 기간이며, 그 모든 육신은 부활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육신이 다만 진화가 낳은 산물일 뿐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육신과 관련된

책임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느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19~20)

이 진리들과 현대 선지자들의 지침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몸에 문신을 새긴다든가, 마약으로 몸을 상하게 하거나, 간음, 음란한 행위 등으로 육신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영의 도구이므로 최대한 잘 보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에게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진척하기 위해 육신의 힘을 성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1) ■

2010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배우고 진보할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의 영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 봉사하고
그것을 전진시킨다.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몸은
영원해질 수
있다.

성전의 축복은
영원하다.

성스러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하나님께서서
주신 선물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의 몸은 성전과 같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우리의 몸이 선물이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물”이라고
가르쳤다. 우리의 몸은
성전처럼 거룩하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몸을
보살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성전과
우리의 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친구들



우리의
멋진 몸!

친12쪽을 보세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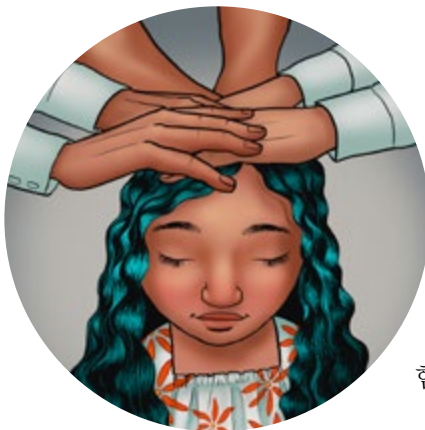
성신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기 바로 전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평안을 주실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6~27)



성신의 느낌은 우리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입니다. 때로 성신은 우리 마음에 부드럽으면서도 뜨거운 느낌을 줍니다. 저에게 성신은 종종 빛의 느낌으로 옵니다.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을 때 여러분은 “성신을 받으라”는 축복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성신과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성신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신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기를 기도합니다. 영이 동반자로서 늘 함께할 때 얻게 되는 기쁨을 느끼시기를 기도합니다. ●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5~18쪽, 『그분의 영광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86~89쪽에서 발췌함.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이어링 회장님

성신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아이어링 회장님은 무언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일지에 기록하세요. 아이어링 회장님은 자신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시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연필로 스케치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는 수채화 물감으로 한 번 색칠을 하고, 물감이 마르면 한 번 더 색칠하시지요.



아이어링 회장님은 배와 가족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좋아하세요. 이 그림은 여덟 살 어린 시절의 아이어링 자매님이 작은 배에 타고 있는 모습을 그리신 거예요.

손주 중 한 명이 프랑스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을 때 아이어링 회장님은 파리의 거리를 걷는 선교사들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셨어요.



이 그림은 회장님의 부인인 아이어링 자매님과 여섯 자녀 중 두 자녀의 모습을 담은 거예요.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 그림을 보면서 가족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기억하곤 하세요.

여러분도 그림을 그려 보세요!

신앙을 연습한다고?

카리 브라운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야고보서 2:18)

클라리는 경기장을 가로지르며 맹렬하게 공을 드리블해 갔어요.

클라리의 머릿속에 바로 이거야!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가장 키가 크고 빠른 상대팀 선수가 경기 내내 클라리를 수비했는데, 지금은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수비하고 있었어요. 기회가 온 거예요!

클라리는 잽싸게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서 빠져나와서 공을 던질 자세를 취했어요. 그런 다음, 클라리는 폴짝 뛰어오르며 공을 던졌어요. 클라리는 허공을 가로지르며 날아가는 공을 숨 죽여 바라보았어요. 제발 들어가라.

공은 그물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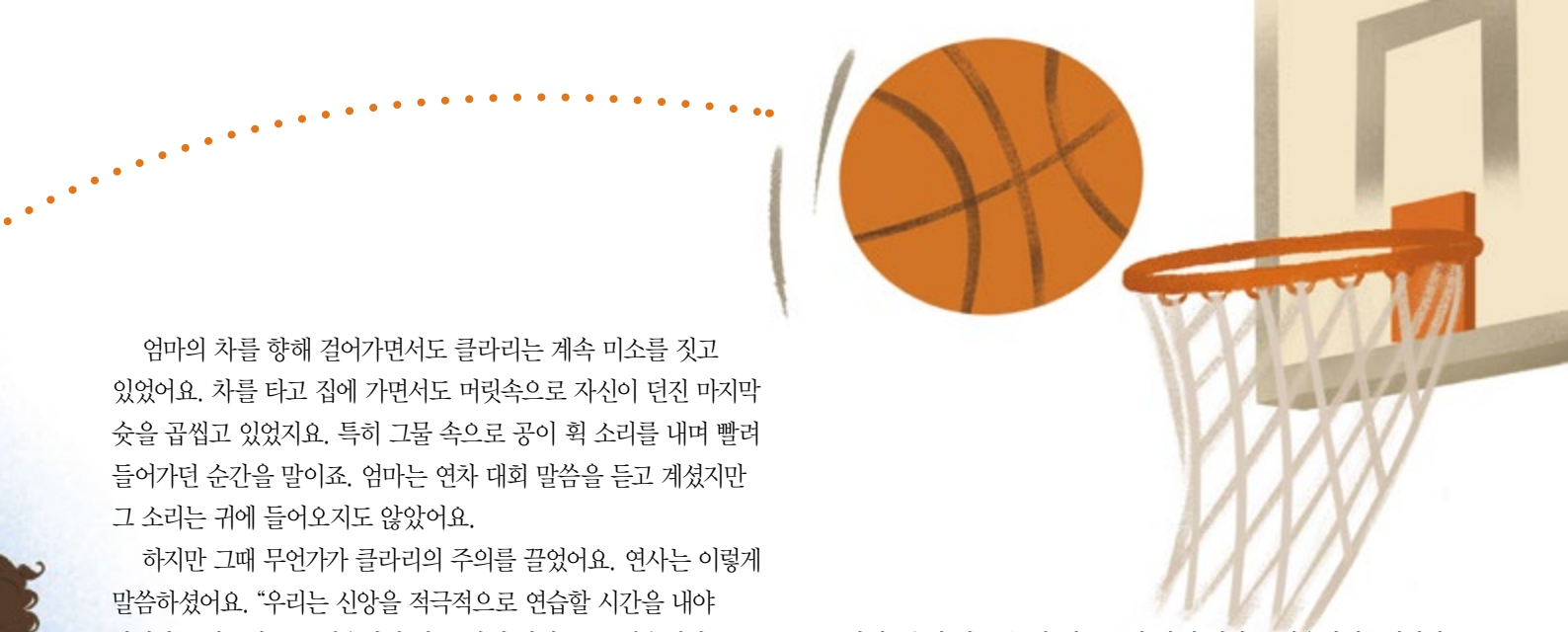
팀원들은 클라리와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가르시아 코치님은 시계를 확인한 뒤 호각을 부셨어요. “이제 연습이 끝났다! 모두 잘했어! 내일 보도록 하자. 단거리 전력 질주를 많이 할 거니까 반드시 휴식을 잘 취하고 와야 한다.”

클라리는 우는 소리를 내며 자신의 물건을 챙기러 갔어요. 그때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가르시아 코치님이 보였어요.

“클라리, 오늘 잘했어. 네가 정말 열심히 연습한다는 거 알아. 그래서 네가 자랑스러워.”

“고맙습니다.” 클라리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의 차를 향해 걸어가면서도 클라리는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도 머릿속으로 자신이 던진 마지막 슛을 곱씹고 있었지요. 특히 그물 속으로 공이 휙 소리를 내며 빨려 들어가던 순간을 말이죠. 엄마는 연차 대회 말씀을 듣고 계셨지만 그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클라리의 주의를 끌었어요. 연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을 적극적으로 연습할 시간을 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연습하다”라는 말이 마치 농구 연습에서 듣는 말처럼 들렸어요. **어떻게 신앙을 연습하지? 클라리는 생각했어요. 신앙으로 달리기를 하나? 아니면 신앙을 공처럼 드리블하는 건가?**

클라리는 엄마에게 몸을 돌리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신앙을 연습하세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너는 농구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나?”

“연습을 하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코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요. 연습 훈련을 할 때 제대로 잘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그렇게 하기가 쉽니?”

“아니요!” 클라리는 단거리 전력 질주를 수도 없이 했을 때 다리가 얼마나 빠근했었는지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연습을 엄청 해야 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갖기를 바라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 그분은 우리가 연습하고 더 나아질 방법들을 주셨어.”

“예를 들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치님 같은 분이시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전도 주셨어. 경전은 코치님이 쓰는 전략서 같은 거야. [전략서: 팀 스포츠에서 특정 경기 상황에 맞춰 작전을 짜고 그것을 모아 만든 것—웁긴이]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배우도록 격려하라고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단다. 가족은 마치...”

“팀 같은 거죠!” 클라리가 끼어들었어요.

“맞아! 우리 가족은 한 팀으로서 함께 일하고 연습하지.” 엄마가 맞장구를 치셨어요. “클라리, 연습을 하면 너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니?”

“더 잘하게 돼요.” 클라리는 몇 주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마지막 슛을 넣게 되었을 때 기분이 얼마나 짜릿했었는지를 떠올렸어요.

“그렇지!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신앙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간증이 더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지. 그리고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클라리는 한 번도 신앙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신앙이 씨앗과도 같다는 말은 들어 보았지요. 하지만 신앙이 농구와 비슷할 수 있다는 건 클라리는 이날 처음 알게 되었어요. 클라리는 코치님이 팀을 위한 연습 계획을 어떻게 짜셨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나도 연습 계획을 짤 수 있을 거야. 신앙을 위한 계획!** 집에 도착하자마자 클라리는 널따란 종이를 찾아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 기도—아침과 저녁
- 경전 공부—매일
- 교회—매주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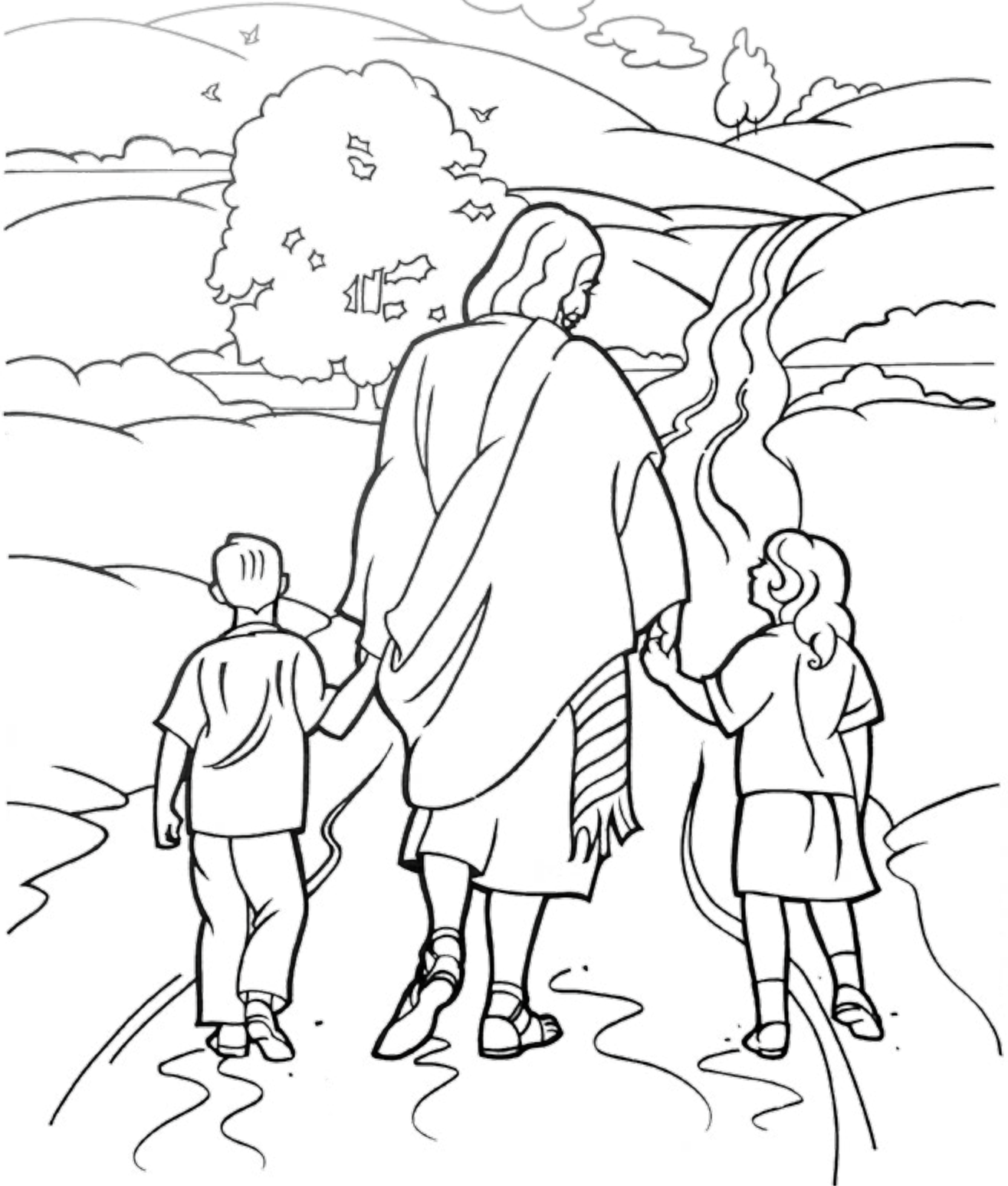
신앙을 행사하는 일은 농구 연습과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연습은 연습이죠. 클라리는 자신의 계획을 보면서 따뜻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클라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고, 그분이 자신을 도와주시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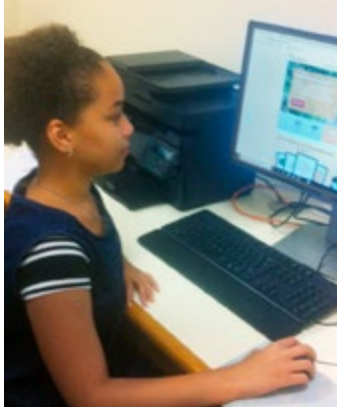
새로운 길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을 선택합니다.

(로마서 6:4 참조)



어린이 발표



저는 스캔된 가족 역사 자료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갈 때 마음이 즐거워요.

마리아 오, 11세, 브라질



우리 가족은 최근에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 가족은 이 새로운 교회를 사랑해요. 어느 날 저녁에 가정의 밤을 하는데 엄마께서 오래된 여권 사진으로 가계도를 만들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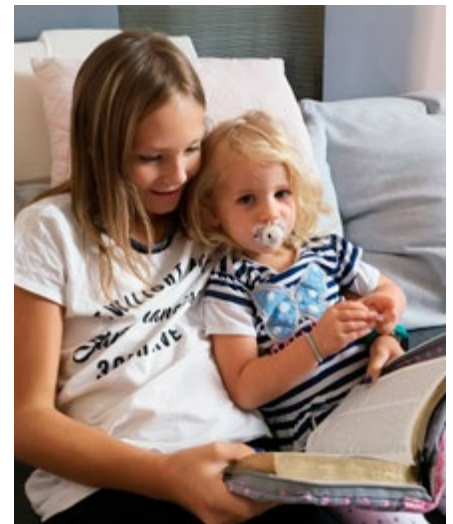
조슈아(9세), 마틸다(11세), 그레이엄(7세), 통가왕국



저는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게 좋아요.
리즈멜 이스, 9세, 푸에르토리코



제가 질문의 답을 찾도록 친구들이 도와줄 때 저는 기분이 좋아요.
리카르도 에이, 9세, 푸에르토리코



멜 피, 8세, 볼리비아

저는 여동생에게 물문경을 읽어 주는 걸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는 니파이전서 3장 7절이에요.

에밀리아, 10세, 독일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대한민국



우리는 마고와
파올로예요.

우리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 볼까요!



한국은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예요. 한국에 사는
5천만 명 중에 교회
회원은 거의 8만 8천명
정도지요.

서울

교회



한국은 한글이라는 이름의 문자를 써요.
여기에 보이는 글자들은 교회 건물 밖에
한글로 새겨진 우리 교회의 이름이에요.



한국의 많은 가족들은 이렇게 생긴 시장에서 장을
봐요. 사람들은 이런 전통 시장에서 과일과 채소,
고기와 간식거리를 사지요. 한국의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는 비빔밥이에요. 비빔밥은 밥과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먹는 음식이에요.



이 가족은 서울 성전을 방문했어요. 한국의 수도에 세워져 있는 이 성전은 1985년에 헌납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집이나 식당에서 바닥에 앉는 게 흔한 일이에요. 많은 가정 이렇게 낮은 탁자에서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죠.

한국에서 온 우리의 친구들을 만나 봅시다!



저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그분들을 따를 거예요.

하은, 11세, 한국



남동생이 제 불력을 망가뜨리거나 제 공책에 낙서를 할 때, 가끔은 그런 동생을 정말 때리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세종, 8세, 한국 경기도

한국에서 오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와 한국 여행을 함께해 주어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삽화: 케이티 맥디

교회로

데이비드 덕슨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모로나이서 4:3)

기 다려, 아직 아침 다 안 먹었잖아.” 엄마는 채소 반찬이 담긴 작은 접시들을 주혁이 앞으로 밀어 주셨어요.

주혁이는 자기 앞에 차려진 아침 식탁을 내려다보았어요. 이러다 늦고 말 거예요! 대개는 교회에 갈 준비를 할 때 큰형이 주혁이를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형이 다른 곳에 있어서 오늘 주혁이는 혼자서 교회에 가야 해요.

“알았어요, 엄마.” 주혁이는 남은 밥을 서둘러서 다 먹었어요. 주혁이는 엄마를 꼭 껴안아 드리고 문으로 나갔어요.

그때 엄마가 주혁이를 불러세우셨어요. “전화기 챙겼어?”

주혁이는 전화기를 주워들고서 “네. 문제가 생기면 초등학교 선생님께 문자 보낼게요.”

“외투 안에 스웨터도 챙겨 입었지? 밖에 날씨가 추워.”

주혁이가 안에 입은 스웨터를 보여 드리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주혁이는 후다닥 거리로 나갔어요.

도시에서 들리는 온갖 소리에 주혁이는 씨익 웃음이 났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도시 중 한 곳에 사는 건 재미난 일이죠!

하지만 주혁이는 아직도 형이랑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까지 가는 길은 언제나 형과 함께였으니까요.

“길을 아니까 괜찮을 거야.” 주혁이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주혁이 생각대로 조금 걸어가니 첫 번째 버스 정류장이 나왔어요.

하지만 정류장엔 주혁이만 덩그러니 혼자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죠. 주혁이는 시계를 들여다보았어요. 버스는 방금 전에 가 버린 게 분명했어요! 이제는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했어요.

몇 분이 지나자 정류장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화사한 파란색 버스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주혁이는 버스 계단을 올라서 요금을 내고 자리에 앉았어요.

딩동!

문자 메시지 소리에 전화기를 확인해 보니 초등학교 선생님이 보내신 문자가 도착해 있었어요.



가기

“지금 버스 타고 오고 있니? 잊지 마. 만약에 길을 잃어버려도 선생님이 널 찾으러 갈 수 있어!”

주혁이는 방긋 웃음을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버스는 몇 정거장만 타고 가면 되지만, 그다음에 갈아탈 버스는 한 시간 이상을 타고 가야 해요.

주혁이는 몇 시인지 확인하면서 얼굴을 찌푸렸어요. 정말이지, 성찬식에 늦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혁이는 성찬식 기도에 나오는 이 말을 정말 좋아했어요.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건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주혁이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주혁이는 몇 달 전에 이모와 이모부의 초대로 형과 함께 교회에 갔고,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김 장로님과 문 장로님은 주혁이와 형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 알아 갈수록 주혁이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딩동!

“버스 갈아탔니?”

주혁이는 “아직요.”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버스는 뽀뽀 거리에서 멈춰 섰어요. 그곳은 다음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정류장이었죠. 주혁이는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갈아탈 버스가 왔는지 여쭙보았어요.

기사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버스는 벌써 가 버렸지. 다음 버스는 15분 뒤에 올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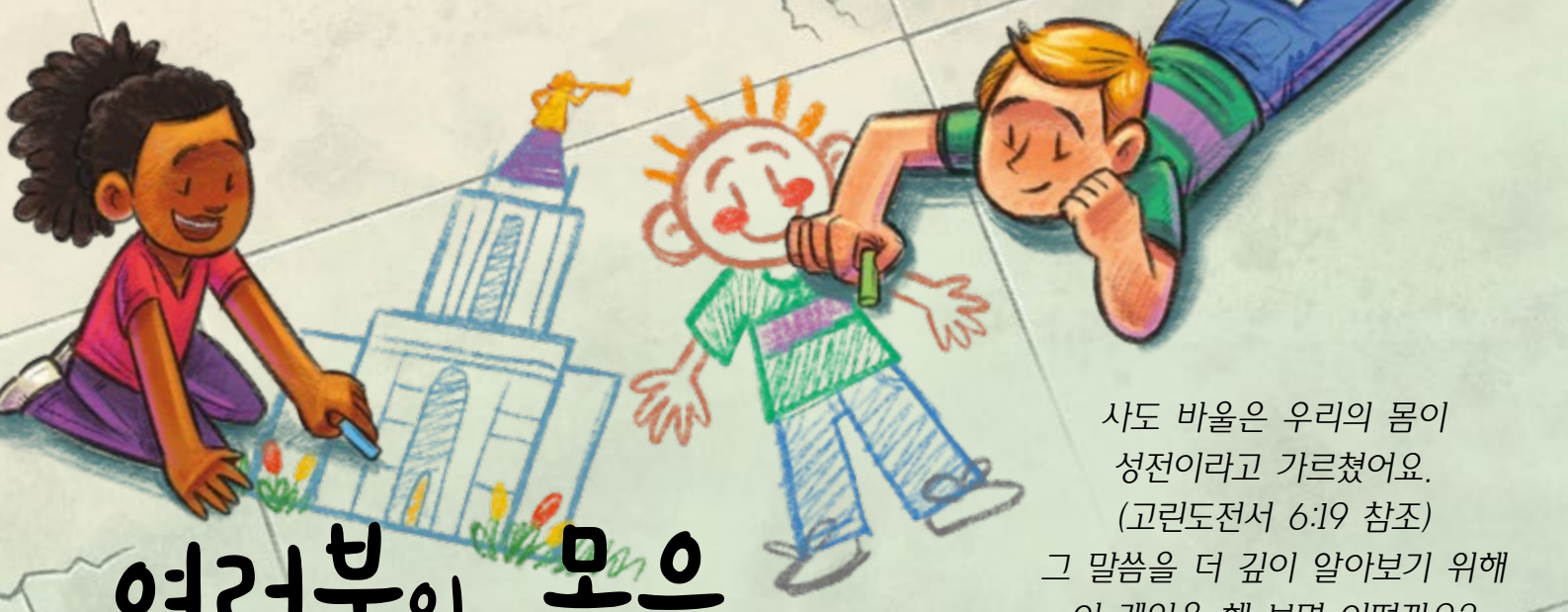
“아, 그렇구나. 아저씨, 고맙습니다!”

두 번째 버스에서 내려서, 마침내 주혁이는 집회소로 들어갔어요. 이모와 이모부가 주혁이가 앉을 자리를 맡아 놓으셨어요. 드디어 교회에 도착한 거예요!

주혁이는 교회에 오기 위해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길에 자기에게 도움을 준 모든 사람을 생각했지요. 주혁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교회에 온 것을 기뻐하신다고 느꼈어요.

주혁이는 조용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에요

1. 다음 쪽에 나오는 카드들을 잘라서 모두가 볼 수 있고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펼쳐 놓으세요.
2.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던지세요. 한 사람이 주사위를 굴러 숫자가 나오면, "성전에 관한 진리"에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큰 소리를 읽으세요.
3. 몸과 관련된 진리가 적힌 카드들 중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찾으세요. (단서: 똑같은 그림 표식이 있는 것끼리 짝지어 보세요.) 짝이 맞는 카드를 찾으면 손을 뻗어 그 카드를 톡 하고 가볍게 두드리세요! 그런 다음, 그 카드에 있는 내용을 큰 소리로 읽고, 그 내용대로 해 보세요.
4. 주사위를 던지고 카드를 두드리는 것을 모두 한 번씩 돌아가며 다 할 때까지 하거나 모든 카드를 다 읽을 때까지 게임을 계속 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가르쳤어요.
(고린도전서 6:19 참조)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이 게임을 해 보면 어떨까요?

성전에 관한 진리

1. 모든 성전은 주님의 집이에요. 
2. 성전의 겉모습은 모두 다르게 생겼어요. 어떤 성전에는 정원과 분수가 있어요. 성전들은 모양과 색도 다 달라요. 모든 성전은 아름다워요. 
3. 매일 사람들은 성전 바깥을 가꾸며 좋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요. 
4. 사람들은 성전의 내부도 깨끗이 청소해요! 성전의 직원들과 봉사자들은 모든 것이 윤이 나도록 닦고 깔끔하게 정돈해요. 
5.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하기 위해 쓰이는 곳이에요. 
6. 성전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는 특별하고 성스러운 장소예요. 



우리 각자의 몸은 그 사람의 영이 거하는 하나의 성전이에요. 또, 우리 몸에는 성신이 거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성신을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 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피부 색깔과 체형과 체격이 다 달라요. 생김새가 어떻든 모든 사람의 몸은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해 보세요.



매일 우리는 씻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운동하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거나 마시면 좋은 것 한 가지, 혹은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말해 보세요.



우리는 영을 초대할 수 있는 것들만 읽고,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초등회 노래를 1절만 불러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의 몸을 쓸 수 있어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하이파이브를 해 주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다루어야 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거나 여러분이 불편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몸을 만진다면, 여러분이 신뢰하는 어른에게 지금 바로 말하세요!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지세요.

캘리와 마르코는 서로 다른 교회에 다녀요.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 분이 되어.”(디모데전서 4:12)

“마르코는 하늘을 보았어요. “난 집에 가야 해.
해가 지려고 해.”

“하지만 우리의 요새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잖아!” 캘리가
말했어요.

“미안!” 마르코는 서둘러 가면서 소리쳤어요.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 해!”

캘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마르코의 친구가 되는 건 좋은
점도 있었지만 힘든 점도 있었어요. 주로 한 가지가 힘들었는데,

그건 바로 함께 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르코와 캘리는
학교에서 같은 학년이었지만 같은 반은 아니었어요. 쉬는 시간도
달랐죠. 그리고 마르코와 캘리는 둘 다 자기 가족과 함께 안식일을
보냈어요. 마르코의 교회에서는 안식일이 금요일 밤에 해가 질
때부터 시작돼요. 캘리의 교회는 일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수도 없이 많아요. 그중 한
가지는 마르코가 욕을 하거나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것들을 보라고 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비록 다니는 교회가 다르기는 했지만, 마르코네 가족과 캘리는 믿음

요새와

우정

케이지 트로스
(실화에 근거함)





면에서 여러 가지가 똑같았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안식일을 서로 다른 날에 지키더라도 그건 똑같았어요.

캘리는 나뭇가지 한 아름을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마르코는 집에 갔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네.” 캘리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거의 놀지도 못해요.”

“금요일에 같이 놀면 어떨까? 학교가 쉬는 날이니까.”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캘리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캘리는 마르코가 오면 바로 요새 짓는 걸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이 가까워졌을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한 가지 발표를 하셨습니다. 3학년 전체가 함께 영화를 볼 거라는 소식이었지요.

“좋았어!” 캘리가 말했어요. 캘리는 가방에 점심 도시락을 넣어 두고 복도에 있는 널찍한 휴게실로 갔어요.

모든 학생이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자 선생님들은 불을 끄셨어요. 영화가 시작했을 때 캘리는 신이 났어요. 그 영화는 몇몇 소년들이 함께 요새를 만드는 내용이었던데요. 캘리와 마르코가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캘리는 상상했어요. 만일 우리가 요새 만들기를 끝낸다면! 그러나 곧 고개를 흔들고는 다시 영화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캘리는 이 영화에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캘리는 점점 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그때, 캘리의 어깨를 누군가가 두드렸어요. 마르코였어요! 마르코는 캘리와 이야기를 하려고 수많은 학생들 사이를 뚫고 기어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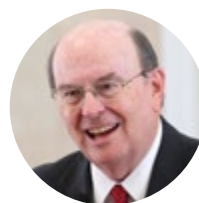
마르코는 이렇게 말했어요. “캘리, 난 우리가 이 영화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우리가 영화를 보는 대신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선생님들께 여쭙보아야 할 것 같아.”

캘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나도 이 영화 별로야.”

자리에서 일어선 캘리와 마르코는 살금살금 걸으며 반 친구들을 돌아서 선생님들이 계신 곳까지 갔어요. 마르코와 캘리는 각자의 선생님께 다가갔어요. 캘리는 영화를 보는 대신 책을 읽어도 되는지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고, 선생님은 그래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캘리가 책을 읽으러 교실로 갔을 때 똑같이 하고 있는 마르코도 보였어요. 마르코는 손을 흔들며 빙그레 웃었어요. 캘리도 같이 웃었어요.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건 요새를 완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었어요. ●

글쓴이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산다.



“저는 ... 여러 종교인에게서 진정으로 선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 「영원한 일상」,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53쪽.

코트디부아르로 간 앤더슨 장로

새로운 성전을 지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 하는 한 가지 특별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은 바로 “착공식”이에요. 닐 엘 앤더슨 장로님과 캐시 앤더슨 자매님은 새로운 성전의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코트디부아르로 가셨어요.



어린이들은 황금색 삽을 들고서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한 첫 삽을 떴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앞으로 2년 정도가 걸릴 거예요.

“우리 자신을 헌신합시다. ... 헌납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도록 우리의 성품과 영혼을 더 훌륭히 다듬읍시다. 더욱 진실하게 구주를 따릅시다.”



앤더슨 장로님은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그 땅을 헌납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앤더슨 장로님과 자매님은 프랑스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코트디부아르의 공식 언어가 프랑스어이기 때문이었지요. 앤더슨 자매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집인 성전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우리는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축복들을 받아요.



새로 지어질 성전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회원들과 제일 가까운 성전은 가나라는 나라에 있어요.
코트디부아르에서 가나까지 가려면 12시간이 걸리지요.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대리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대리 침례를 받을 코트디부아르의 어린이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가게 될 거예요.

나 성전 보고 싶어

아래는 “나 성전 보고 싶어”라는 노래 제목을 여섯 개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선을 따라가면서 각 문장이 어떤 언어로 된 것인지 알아보세요.

Me encanta ver el temp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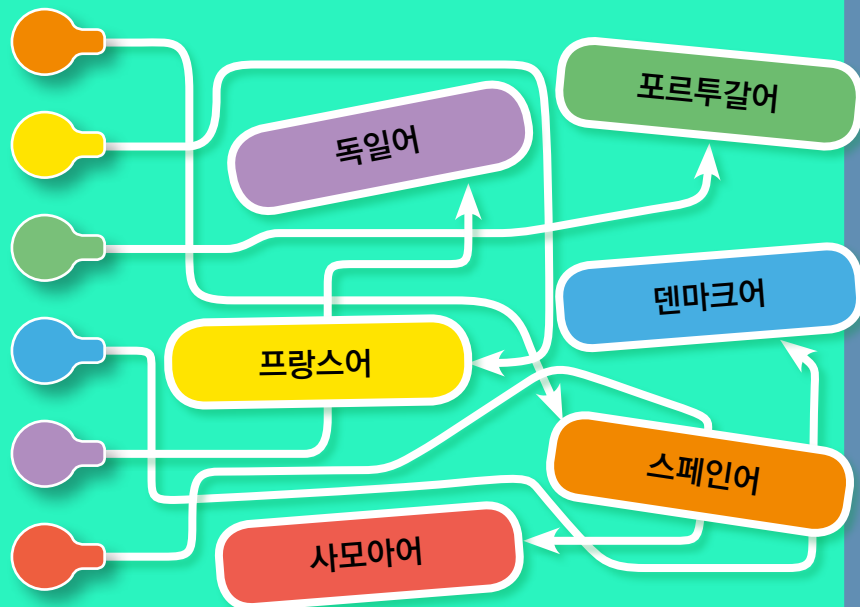
Oh, j'aime voir le temple

Eu gosto de ver o templo

Jeg elsker herrens temple

Ich freu mich auf den Tempel

Out e fia vaai I le malumalu



나는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어요!





미셸 디 크레이그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힐라맨의 이천 용사와 같은 가족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 곧 나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
(제3니파이 27:5)

저는 칠레에 사는 한 가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제가 방문하기 한 달 전에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 가족의 자녀 중에는 벤저민이라는 남자아이도 있었는데, 벤저민은 당시 열 살이었습니다.

아빠의 사고가 있기 전에 벤저민은 가정의 밤에서 공과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벤저민은 물문경에 나오는 힐라맨의 이천 용사에 대해 가르쳤습니다.(앨마서 53:16~22; 56:42~57 참조) 벤저민은 그들이 얼마나 용감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벤저민이 했던 공과가 생각났습니다. 벤저민의 엄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힐라맨의 이천 용사들처럼 용감해야 해. 우리가 싸워야 할 전투가 있단다.”

이것은 벤저민의 가족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이

영망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와 살기 위해 이사를 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아빠가 정말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자신들이 언젠가 아빠와 함께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힐라맨의 이천 용사와 같은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벤저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용감해지고 있어요.”

저는 이 가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축복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벤저민네 가족은 이 전쟁에서 매우 용감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신앙은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벤저민처럼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용감해진다는 것은 슬픔과 두려움을 절대로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헤쳐 나가도록 도와주시리라는 신앙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힐라맨의 이천 용사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

바울의 회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그분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제자들의 가르침을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특히 괴롭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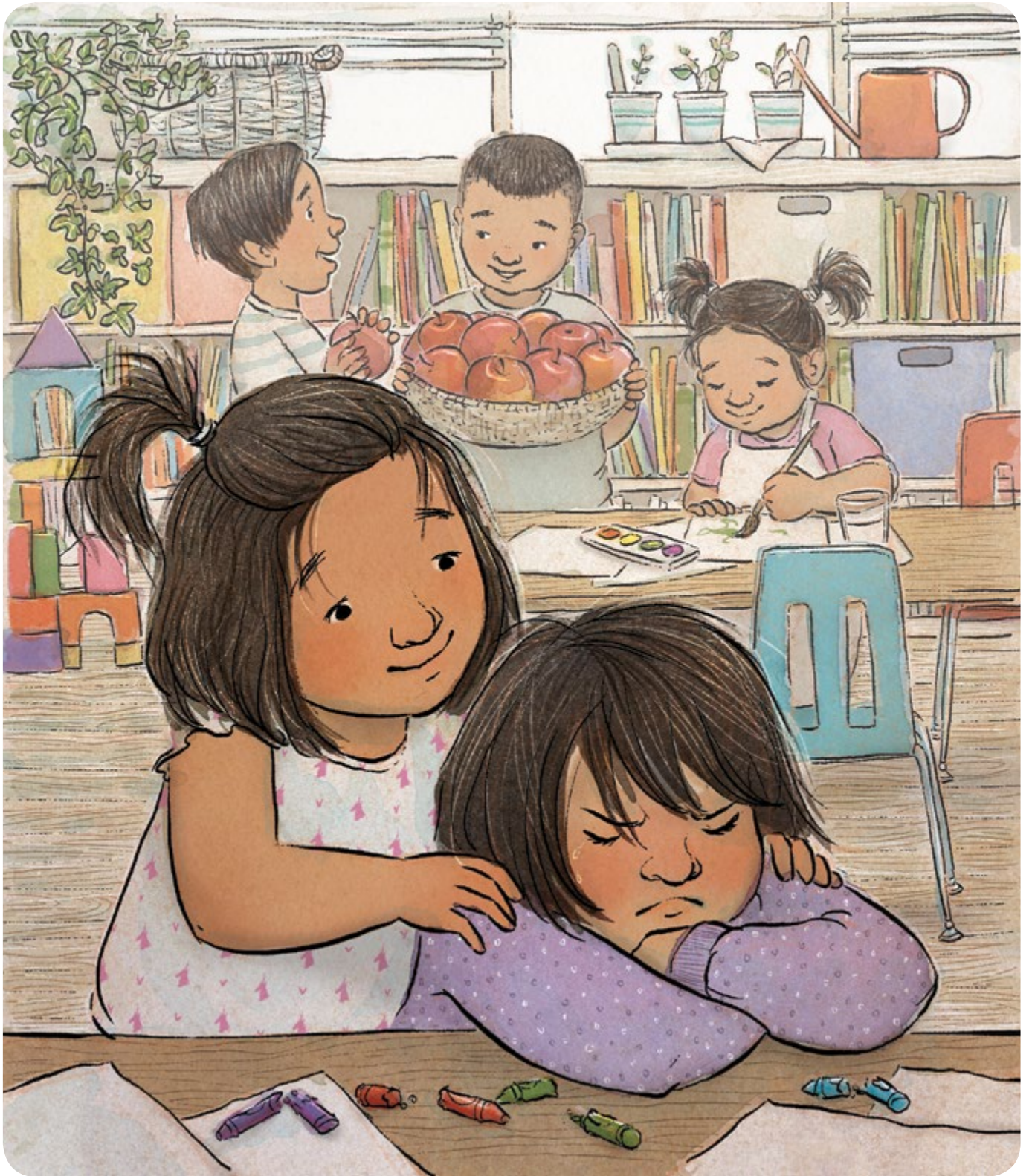
어느 날 먼 길을 가던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밝은 빛을 보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시작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때 본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거룩한 사람인 아나니아는 바울의 눈을 치유해
주었고, 바울에게 침례도 주었어요.

그 후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어요.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이자 교사,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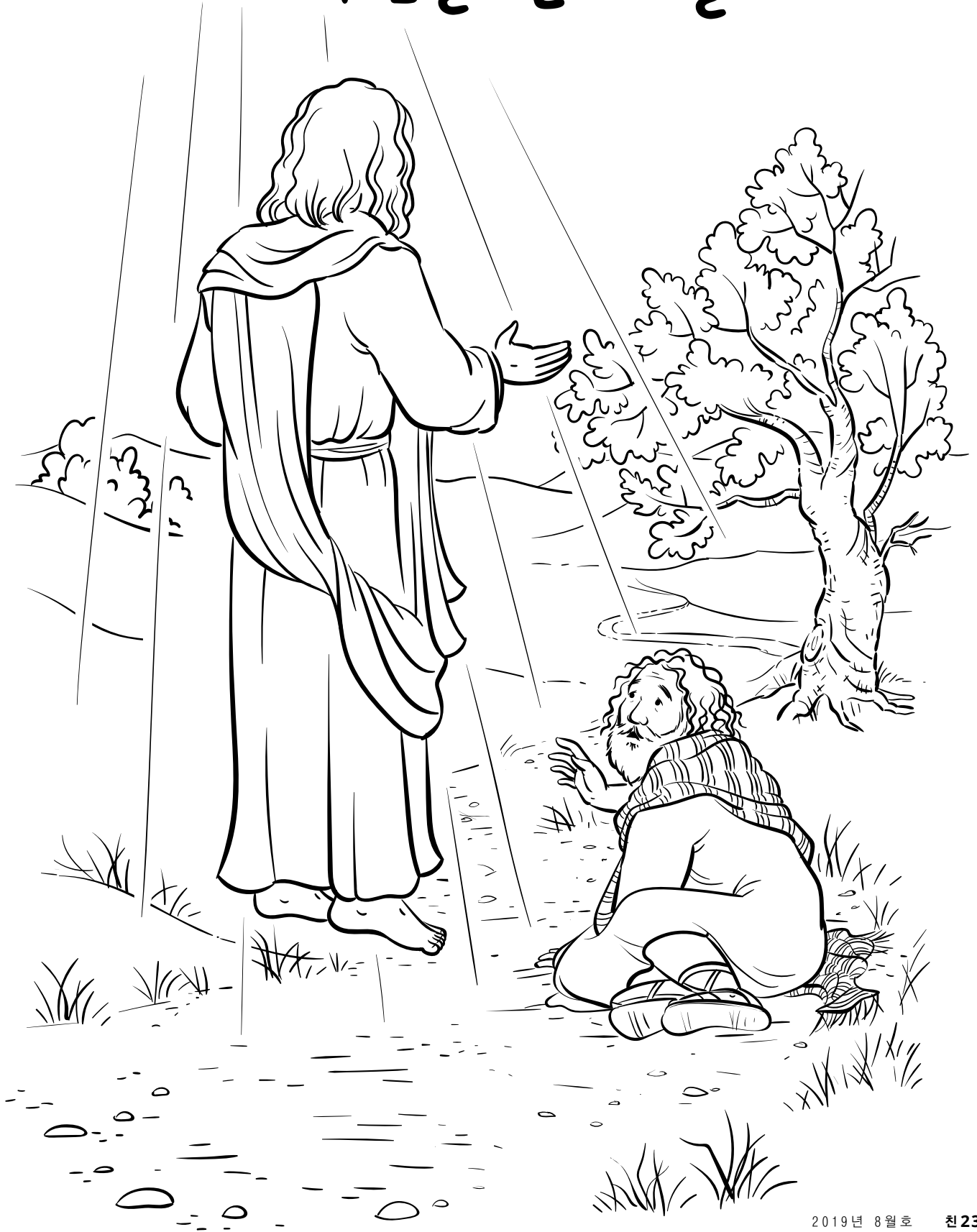


나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를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

바울의 개종 이야기를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읽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본 바울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이번호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꾸려졌습니다.
(신앙개조 제4조)

- 자신의 신앙을 연습하는 법을 배운 한 소녀(친4~5쪽)
- 예수님을 따를 것을 선택하며 바울이 보여 준 회개에 대한 모범(친20~22쪽)
- 우리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는 색칠하기 활동(친6쪽)
- 성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라고 가르치는 아이어링 회장 자녀와 함께 이번호를 읽으며 이러한 원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런 원리들을 찾으면 동그라미를 치거나 밑줄을 그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 가족이 함께 멋진 토론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충실하십시오,
『친구들』

자녀의 예술 작품이나 경험을 『리아호나』에 보내고 싶습니까?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또는
자녀의 이름과 나이, 거주 지역, 그리고 “나
[부모의 이름]는 내 자녀가 제출한 자료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교회
잡지, 교회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
교회 보고서, 인쇄물, 동영상, 간행물, 훈련
자료로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라는 내용의 동의문을 liahona@
ChurchofJesusChrist.org로 보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책 속에 숨어 있는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목차

- 친2 제일회장단으로부터: 성신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 친4 신앙을 연습한다고?
- 친6 새로운 길
- 친7 어린이 발표
- 친8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어예요!
- 친10 교회로 가기
- 친12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에요
- 친14 요새와 우정
- 친16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도들: 코트디부아르로 간 앤더슨 장로
- 친18 빛나는 아이디어: 나는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어요!
- 친19 힐라맨의 이천 용사와 같은 가족
- 친20 경전 이야기: 바울의 회개
- 친23 색칠하기: 예수님을 본 바울